

www.kocham.org



2022-2023

통상백서

K 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통상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미한국상공회의소(이하 KOCHAM)는 1992년 창립 이래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 활동을 강화하고자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KOCHAM은 미국 진출 기업들의 친목과 정보교환 등 초기 활동에서 한미 무역증진과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 관련 건의 및 교섭 활동으로 폭을 넓혀 왔습니다.

COVID-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팬데믹 전 경제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고강도 금융정책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올바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02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초 1,000억 달러를 초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이 각종 통상 관련 비즈니스 및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도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KOCHAM은 미국 내 주요지역 한국지상사협회들과 연계하는 지역협의체(KOCHAM USA)역할을 하며 미국진출 한국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올해 아홉 번째 발간되는 [2022-2023 KOCHAM 통상백서]는 KOCHAM의 역량 강화와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책자라 생각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KOCHAM 출판분과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KOCHAM은 앞으로도 미국 내 한국 기업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통상 개선 활동과 더불어 권익옹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하며 해외기업협의체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황보원**

목 차

발/간/사

I. 미국 시장 개황

1. 일 반	10
2. 정 치	15
3. 경 제	16
4. 산 업 구 조	17
5. 미 국 시 장 특 성	19

II. 미국 경제 현황

1. 실 물 경 제	23
(1) 개 요	24
(2) GDP 성장률	25
(3) 경 기	27
(4) 고 용 시 장	31
(5) 주 택 시 장	33
2. 금 융 시 장	36
(1) 금 리	37
(2) 주 가	38
(3) 환 율	39
3. 대 외 거 래	42
(1) 수 출 입 총 괄	42
(2) 주 요 국 가 별 수 출 입	43
(3) 주 요 품 목 별 수 출 입	46
(4) 한 미 교 역 현 황	49

4. 한미간 투자 현황	54
(1) 일 반	54
(2) 한국의 업종별 대미 직접투자	56
(3)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58
(4)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59

III. 국제 통상이슈

1. 글로벌 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	62
(1) GSC의 변화	62
(2) GSC 위기의 원인	64
(3) 미·중 공급망 경쟁	67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68
(5) GSC 재편이 변화시킬 통상환경	72
2. 세계 에너지 시장	75
(1) 글로벌 에너지 쇼크	75
(2) 주요 글로벌 공급망	78
(3)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80
3.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86
(1) 미·중 무역갈등의 현황	86
(2)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91
(3)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92
4. 세계정치환경 변화	93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93
(2)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내용	94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	98

I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1. 인플레이 감축법(IRA) 시행과 한국 기업들	103
(1) 배경	103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103
(3) 개선 요청사항	104
2. 물류 문제	105
(1) 배경	105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105
(3) 개선 요청사항	106
3.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관세 제재와 한국 기업	107
(1) 배경	107
(2) 애로사항 및 전망	107
4. 구인난과 비자 발급 이슈	109
(1) 배경	109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109
(3) 개선 요청사항	110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대한항공	112
2. HRCap Inc.	114
3. Meta Biomed Inc.	117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1. 각 지역별 협회 소개	122
----------------------	-----

VII.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활동 사항 ··· 125

ENGLISH SECTION_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131
--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ompanies in the U.S.	143
---	-----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151
--	-----

Activities of KOCHAM	155
----------------------------	-----



I 미국 시장 개황

1. 일반
2. 정치
3. 경제
4. 산업구조
5. 미국 시장 특성

1. 일반

(1) 지리적 요건

미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미주대륙 북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983만 3,517km²(한반도의 약 45배, 남한의 95배)으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국토 면적 3위이다. 미국은 50개 주와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으며, 괌,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제도 등 해외속령과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인 마셜제도, 캐롤라인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동쪽에는 카리브해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8,893km²(알래스카 국경 2,477km² 포함) 길이의 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3,155km²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2)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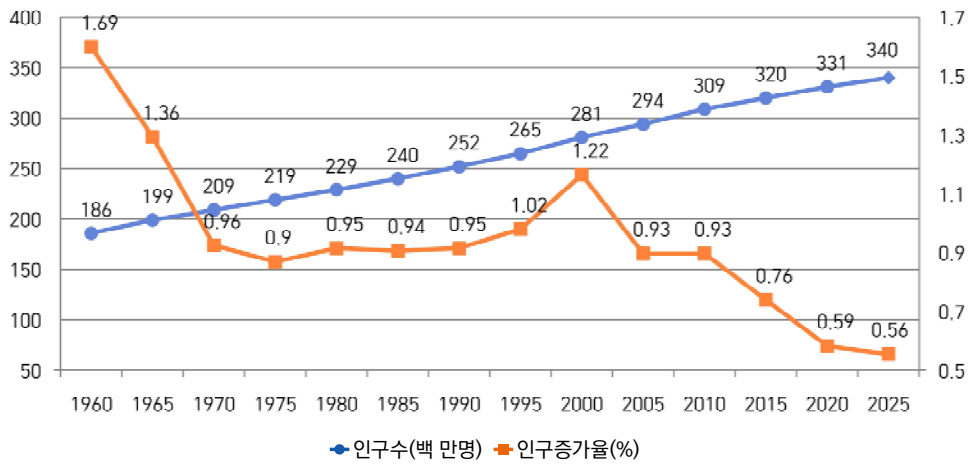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답게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가 24°가 나는 대륙인 만큼 기후 차이가 심하다. 본토의 남쪽은 아열대성 기후,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서남쪽은 사막 기후, 동북쪽은 온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하와이는 열대성 기후, 알래스카는 한대성 기후를 형성하고 있다.

(3) 인구

2022년 10월 미국 전체 인구는 약 3억3,325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 약 78억 2,982만 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약 14억 1,053만 명), 인도(약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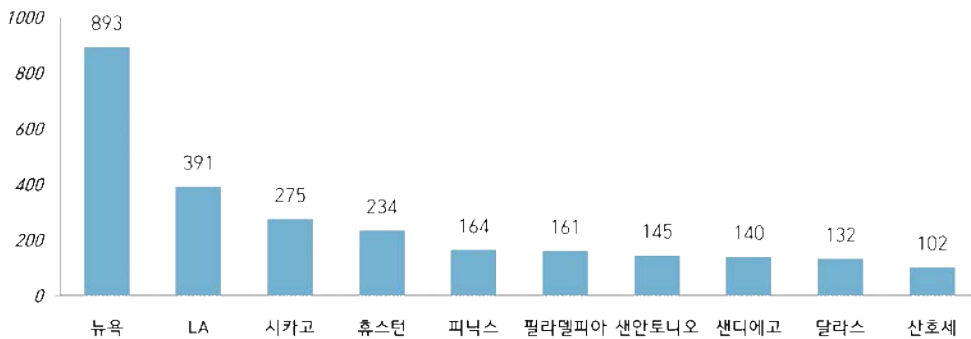
억 8,963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한국 약 5,184만 명). 2022년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추정치)은 0.69%이며 평균 수명은 80.59세(남자 78.36세, 여자 82.79세)이다. 전체 인구의 약 83.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피닉스 등이 있다. 남부와 서부의 '선 벨트' 지역이 미국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인구수 및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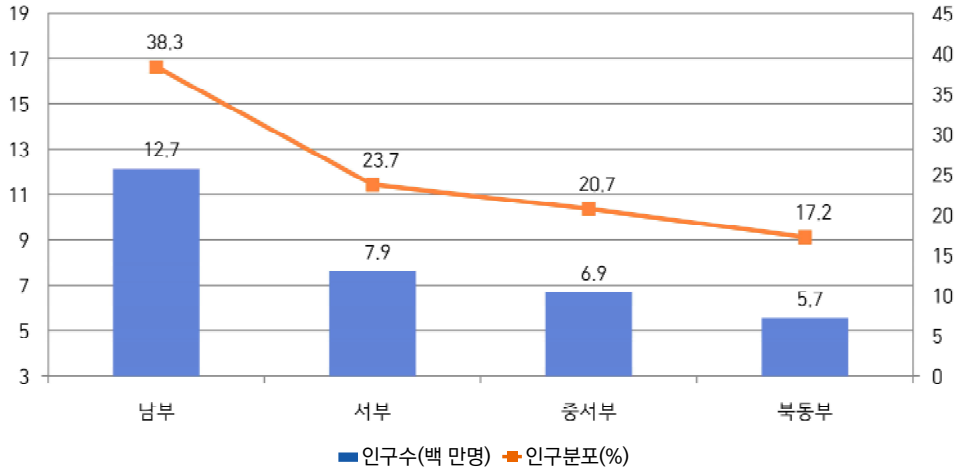
▲자료: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2020), Worldometer(2021)
 주: 2025년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은 추정치

미국 주요도시 인구(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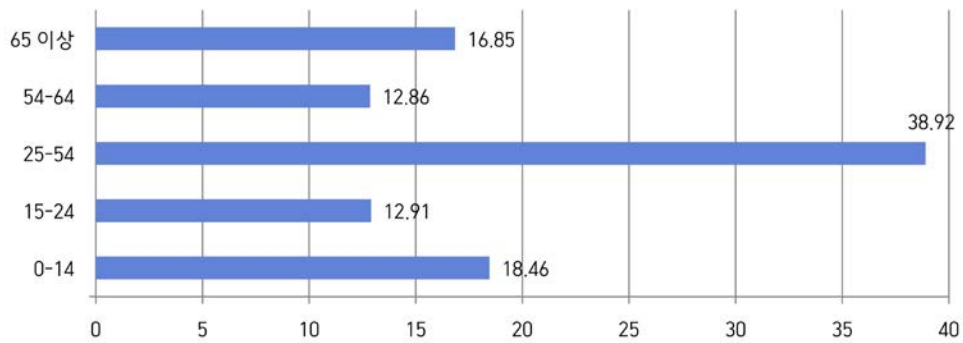
▲자료: 미센서스국(2022 추정치)

미국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분포(%)



▲자료 : 미센서스국(2021)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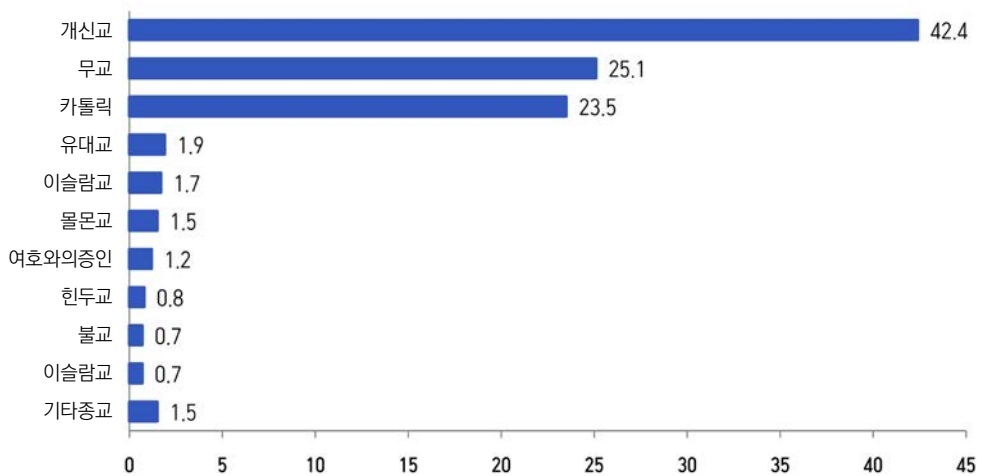


▲자료 : CIA World Factbook(2020)

(4) 종교

다수의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특성상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으나, 유럽 이민자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개신교(42.4%)와 가톨릭(25.1%) 신자가 다수 존재하며, 유대교(1.9%), 이슬람교(1.7%), 몰몬교(1.5%), 여호와의 증인(1.2%), 힌두교(0.8%), 불교(0.7%), 이슬람교(0.7%) 신자가 존재한다.

미국 내 종교 분포(%)



▲자료: Statista, PRRI(2021)

(5) 언 어

전체 인구의 78.2%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13.4%, 중국어 1.1%, 기타 언어 7.3%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스페인어를 통용하고 있다.

미국 일반사항 개요

국 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면 적	983만 3,517km ² (50개 주 및 특별구(워싱턴 DC) 포함)
위 치	미주대륙 북부(서경 66°57'~124°44' / 북위 25°7'~49°23')
인 구	3억 3,325만 명(2022년 10월 추정치)
민 족	백인(61.64%), 흑인(12.4), 아시아계(6%),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1%),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기타(8.4%)
종 교	기독교(42.4%), 가톨릭(23.5%), 유대교(1.9%), 몰몬교(1.5), 여호와의 증인(1.2%), 이슬람교(0.7%), 힌두교(0.8%), 불교(0.7%), 이슬람교(0.7%), 기타(1.5%), 무교(25.1%)
언 어	영어(78.2%), 스페인어(13.4%), 중국어(1.1%), 그 외(7.3%)
국가표어	우리는 신(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국 가	성조기여 영원하라(The Star-Spangled Banner)
상 징	흰머리 독수리

▲자료: 미상무부, 미센서스국, CIA World Factbook, PRRI

2. 정치

미국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및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제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로 50개 주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개별 선거구를 대표하고 상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2년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다시 선출한다.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뉜진 이원적 사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권한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 개요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Joe Biden
의회	양원제 (상원 : 100석, 임기 : 6년 / 하원 : 435석, 임기 : 2년)
주요정당	공화당, 민주당
사법체계	이원화 (연방/주)
독립일	1776년 7월 4일
UN가입일	1945년 10월 24일
국제기구가입	IMF, G-8, OECD, NATO, APEC, IAEA, WTO 등

▲자료: CIA World Factbook

3. 경제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민간기업 자율과 정부의 통제가 조화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산업기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혁신, 국내외 투자활동, 자유무역 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있다.

미국 경제 개요

국내총생산(GDP)	22조 996억 달러(2021년 명목 GD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61,280달러(2021년)
실질경제성장률	2.0%(2022년 3분기)
실업률	4.2%(2022년 11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7.7%(2022년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8.0%(2022년 10월)
환율	US\$1=1,307.00 KRW(2022년 12월 1일, 매매기준환율)
부채	31조 2,383억 달러(2022년 10월)
외환보유고	2,328억 52만 달러(2022년 10월)
연간 수출액	2조 5,566억 달러(2021년), 2조 2,482억 달러(2022년 9월 누적)
연간 수입액	3조 4,016억 달러(2021년), 2조 9,938억 달러(2022년 9월 누적)

▲ 자료: 미상무부, 미경제분석국(BEA), 미노동통계국(BLS), World Bank

4. 산업구조

2022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Value Added 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8.4%로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1.6%로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1차 산업(1.1%), 2차 산업(18.8%), 3차 산업(68.3%)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 및 부동산(20.2%), 전문 비즈니스(13%), 교육 및 복지(8.3%), 소매(6.3%), 도매(5.8%) 등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농업 및 어업(1.2%), 광업(2.1%), 제조업(11%) 등 1차 및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산업별 구성비

(단위: %)

산업 구분	2020년	2021년	2020		
			1분기	2분기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공공 부문	12.8	12.1	11.7	11.6	
연방	4.0	3.8	3.7	3.6	
주/지방	8.8	8.3	8.1	8.0	
민간부문	87.2	87.9	88.3	88.4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0.8	0.9	1.1	1.2
2차산업	광업	1.0	1.4	1.7	2.1
	공공시설	1.6	1.6	1.6	1.8
	건설	4.2	4.1	4.0	3.9
	제조업	10.6	10.7	10.9	11.0
3차산업	도매업	6.0	6.2	5.8	5.8
	소매업	5.7	6.0	6.4	6.3
	운송, 물류 유통	2.8	3.0	3.1	3.2
	정보	5.6	5.6	5.5	5.4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21.8	21.0	20.5	20.2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2.9	13.0	13.1	13.0
	교육, 헬스케어, 복지	8.9	8.6	8.4	8.3
	예술, 공연, 음식	3.3	3.9	4.1	4.1
기타 서비스	2.0	2.0	2.0	2.0	

▲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9/29 발표자료

주요 산업의 생산현황(2012년=100,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지수)을 살펴보면, 2009년 전체 산업생산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다시 증가하였다. 민간부문도 2020년 전년대비 감소하여 121.827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21.827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2분기에는 125.226를 기록하였다. 공공 부문은 2020년 전년대비 하락하여 106.087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전년대비 증가하여 107.762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2분기에도 108.373으로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대되었다.

미국 주요부문별 생산지수

[단위: 지수(2012=100)]

산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2분기)
국내총생산		115.112	117.320	113.102	120.170	123.237
공공 부문		103.744	106.384	106.087	107.762	108.373
민간 부문		116.628	118.777	114.021	121.827	125.226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118.132	115.243	120.451	117.139	114.462
2차 산업	광업	117.647	123.424	105.466	103.022	108.365
	공공시설	109.432	108.492	105.607	107.974	111.272
	건설	129.127	130.431	132.787	134.049	123.778
	제조업	105.892	105.550	98.019	100.009	100.380
3차 산업	도매업	113.938	112.628	108.004	120.151	125.512
	소매업	126.429	127.623	129.022	137.344	136.763
	운송, 물류 유통	120.157	121.370	105.446	120.599	129.934
	정보	137.583	143.149	145.478	164.984	177.817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111.944	115.004	114.983	119.928	121.759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26.894	133.278	132.867	147.893	158.011
	교육, 헬스 케어, 복지	115.523	118.539	112.906	118.215	120.976
	예술, 공연, 음식	120.376	122.783	89.250	117.714	132.038
	기타 서비스	109.914	111.144	101.318	102.954	103.804

▲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9/29 발표자료

5. 미국 시장 특성

(1) 일반

미국은 2021년 세계수입액 22.6조 달러의 12.9%인 2.9조 달러, 세계수출액 22.3조 달러의 7.9%인 1.8조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WTO 상품 교역량 기준).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기업들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2) 미국의 시장 특징

미국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개인 소비지출도 호조를 보여왔다. 단일국가 시장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시장구조를 띄고 있다. 소득 수준, 인종, 세대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패턴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화된 틈새시장이 병존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성향이 반영되면서 고정관념을 탈피한 젠더뉴트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소수민족, 성적 소수자인 LGBT의 구매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남성들의 소비 증가가 여성 소비자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패션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3) 미국의 투자 환경

미국은 투자규제에 대한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을 따르고 있어 개별법 및 주 정부 관할 관청의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장벽이 매우 낮으며 단독 투자 및 합작 투자 모두 가능하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에서 관여한다. 외국인 유치활동은 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 주 정부가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각종 세액감면, 보조금 지원, 토지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미국 소비자별 특징

밀레니얼 세대가 2015년 7,540만 명을 기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7,49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1%를 차지하는 히스패닉의 경우 최근 10년 내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일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소매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요 소비계층별 특징

베이비 부머	현황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전체인구의 26%를 차지 가장이 55세 이상인 가구가 4,700만개 정도로 주요 소비계층으로 성장 미국 전체 부의 60% 보유/ 총 소비자 지출의 40% 차지
	특징	육아지출이 사라지면서 높은 가처분소득(연간 지출액 2.3조 달러 추정) 능숙한 인터넷 사용, 적극적인 외모 및 건강관리, 각별한 손주사랑 식품(92%), 가정용품(73%), 의류(56%) 등의 성장을 주도
밀레니얼 세대	현황	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태생. 전체인구의 23.5% 차지 2020년까지 소비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특징	구매력 상승(연간 지출액 1.3조 달러)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며, 인터넷 사용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해 자신의 신념, 가치 등이 투영되는 브랜드 구매 전문가보다는 가족, 친구, 유명인사에 따른 구매 선호 브랜드 참여도가 높고, 감각쇼핑, 편의성을 중시 2020년까지 미국 소비의 약 1/3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
Z세대	현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 속에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2020년 전체 소비자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
	특징	SNS 상에서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를 통해 신중하고 실용적인 소비활동을 추구 이전 세대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인종, 성별 등에 관대함 공정한 생산 과정, 사회 공헌, 유기농 등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 내 Z세대의 소득 수준이 높아 미국은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
히스패닉	현황	전체 인구의 17.1% 차지(2060년 31% 예상)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뉴저지, 콜로라도 주에 거주 향후 10년 동안 히스패닉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미국 소매 부문 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특징	젊은 연령층(히스패닉 중간연령은 27세). 구매력 상승세(연간지출액 1.2조 달러), 오감 쇼핑, 브랜드 제품 선호. 가족, 친구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자료: 미센서스국, KOTRA

(5) 팬데믹 이후 미국의 소비 트렌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가계저축 소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면서 저렴한 대체재 구매와 패키징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는 감소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대체품에 대한 소비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쇼핑이 회복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오프라인을 앞지르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옴니채널이 뉴노멀 쇼핑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 탄소배출 관련 정보 요청, 재활용 포장재 사용 요구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친환경적 활동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대한 영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II 미국 경제 현황

1. 실물 경제
2. 금융 시장
3. 대외 거래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실물 경제

(1) 개요

2022년 상반기 미국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위축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실업률 등의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물가는 원자재 가격, 서비스 가격 등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래 최고치인 8.6%를 기록하였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주가는 연준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안전 자산 선호 등이 반영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5월 이후 경제활동이 주춤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회복 지연 등의 외부 충격과 통화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을 전망된다. 또한 기업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정부지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개인소비 증가세는 낮아지고 주택투자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 및 주요부문별 성장률

(전기대비, %)

내역	2020년	2021년	202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성장률	-2.8	5.9	-1.6	-0.6	2.9
개인소비	-3.0	8.3	1.3	2.0	1.7
상품	5.2	12.2	-0.1	-2.6	-0.2
(내구재)	10.0	18.5	7.6	-2.8	-0.3
(비내구재)	2.7	8.8	-4.4	-2.5	-0.1
서비스	-6.6	6.3	2.1	4.6	2.7
민간국내총투자	-5.3	9.0	5.4	-14.1	-9.1
고정투자	-2.3	7.4	4.8	-5.0	-4.1
(비주거)	-4.9	6.4	7.9	0.1	5.1
(구조물)	-10.1	-6.4	-4.3	-12.7	-6.9
(설비)	-10.5	10.3	11.4	-2.0	10.7
(거주)	7.2	10.7	-3.1	-17.8	-26.8
수출	-13.2	6.1	-4.6	13.8	15
수입	-9.0	14.1	18.4	2.2	-7.3
정부 소비지출	2.6	0.6	-2.3	-1.6	3.0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30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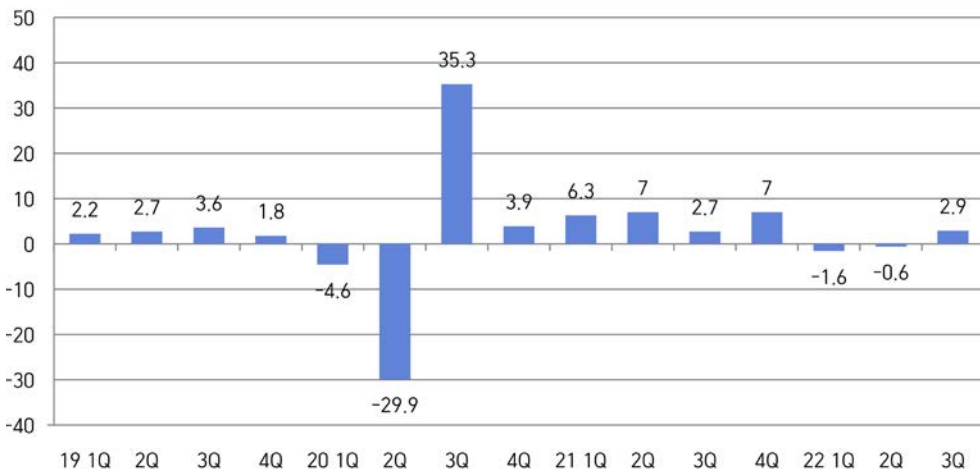
(2) GDP 성장률

미국의 GDP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4.6%, -29.9% 감소하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35.3%, 3.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1년에도 이어져 1~4분기 각각 전기대비 6.3%, 7%, 2.7%, 7% 증가하였다. 2022년 1분기에는 재고 투자와 순수출이 부진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기대비 -1.6% 감소

하였다. 2분기에는 투자 감소,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 -0.9% 감소하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3분기 들어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대외 및 정부 부문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대비 2.9% 증가하며 반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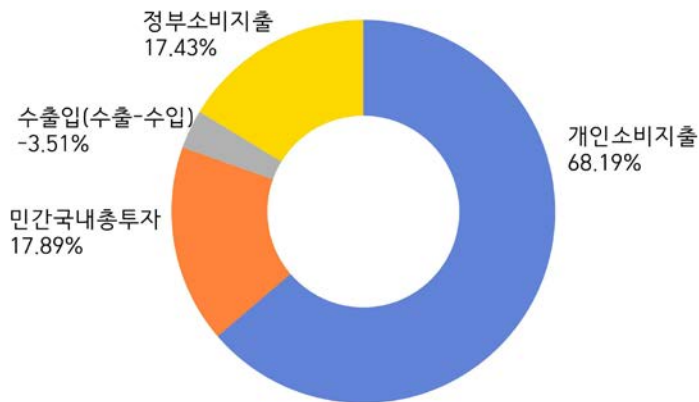
2019-2022 GDP 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



▲자료 :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30 발표자료

주요부분 GDP 비율(2022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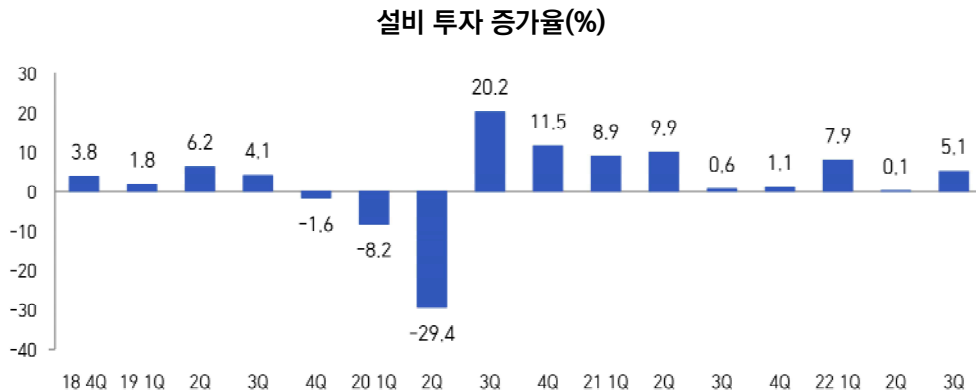


▲자료 :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30 발표자료

(3) 경기

기업 설비투자

2022년 1분기 기업설비투자(비거주 기준)는 전년도 4분기에 비해 7.9% 증가하였다. 2분기에는 전기대비 0.1% 증가하였으며 3분기에도 전기대비 5.1% 증가하며 2020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 주: 비주거용 고정투자(전기대비)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1/30 발표자료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

2022년 1월 산업생산은 제조업 회복세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광업의 증가세, 한파 영향으로 전기 및 가스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2월 한파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전기 및 가스업이 감소하고 광업도 주춤하였으나 제조업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고 3월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광업과 전기 및 가스업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4월에도 제조업, 광업, 전기 및 가스업 증가세가 지속하였고 5월 제조업이 감소하였으나 광업, 전기 및 가스업은 증가하였다. 6월 제조업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전기 및 가스업도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7월 광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이 자동차 및 부품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8월 전기 수요 및 상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감소하였으나 9월 내구재 생산이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 추이

(전기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산업생산	-0.7	3.1	6.5	3.5	4.8	4.7	5.1	2.2
(제조업)	-6.3	2.4	5.1	3.6	5.8	3.7	3.1	0.3
설비가동률	72.6	75.6	77.2	78.0	78.8	79.4	80.	80.1
(제조업)	72.4	75.7	76.8	77.5	78.6	79.1	79.5	79.4

▲자료: 미연준(FRB), 11/16 발표자료

ISM 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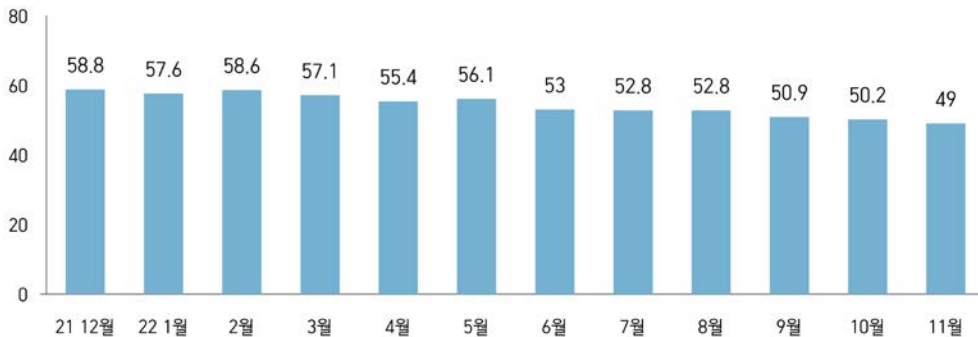
2022년 ISM 제조업지수는 기준치(50)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2개월 평균(10월 기준)은 55.3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1월 60.6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10월 50.2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2월 신규 주문 증가로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3월 지정학적 긴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다. 4월 신규 주문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5월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6월에도 전월대비 감소한데 이어 7월 52.8을 기록하며 2020년 6월 52.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8월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월 신규 주문과 고용 등의 감소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10월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하면서 50.2를 기록하였다. 11월 49로 하락하며 30개월 만에 50을 밑돌면서 위축되었다.

ISM 제조업지수 추이

내역	2020년	2021년	202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ISM 제조업지수	52.5	60.6	57.8	54.8	51.3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1/21 발표자료

ISM 제조업지수(월별)



▲ 주: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미국 제조업 경기 확장을, 50이하일 경우 수축을 의미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2/1 발표자료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1월 전월대비 0.2% 증가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3월 전월대비 각각 0.5% 증가하였으며 4월에 전월대비 0.3% 증가하였다. 5~6월 전월대비 각각 0.6% 증가한데 이어 7~9월 각각 전월대비 0.4% 증가하였다.

소비자심리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1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가 악화되면서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는 상회하였다. 2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였으며 3월 고용시장이 회복되면서 상승하였다. 4월에도 다시 상승하였으나 5월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면서 하락하였다. 6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하였으며 7월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하여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8월 다시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며 9월 견조한 노동시장,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소비 지출

개인소비지출은 1월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2% 증가하였다. 2월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3~6월 각각 전월대비 1.2%, 0.4%, 0.7%, 1.2% 증가하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전월대비 0.1% 감소하였으나 8~9월 각각 전월대비 0.6%, 0.6% 증가하였다. 견조한 노

동시장과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개인소비지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판매

소매판매는 2021년 12월 전월대비 0.9% 감소하였으나 2022년 1월 전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6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7월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8월 전월대비 0.7%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9월 전월대비 비교해 보합에 머물렀다.

소매 매출 및 개인소비 추이

(단위: 전월대비, %)

구 분	2021년	202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개인소득	0.4	0.2	0.5	0.5	0.3	0.6	0.6	0.4	0.4	0.4
소비자 신뢰지수 ¹⁾	70.6	67.2	62.8	59.4	65.2	58.4	50.0	51.5	58.2	58.6
소비자신뢰지수 ²⁾	111.1	105.7	107.2	107.6	108.	106.4	98.4	95.3	103.2	107.8
개인소비지출	-0.9	2.0	0.7	1.2	0.4	0.7	1.2	-0.2	0.6	0.6
소매판매	-1.6	2.7	1.7	1.2	0.7	0.4	1.0	-0.4	0.7	0.0

▲ 주: ¹⁾미시건대 기준, ²⁾컨퍼런스보드 기준

자료: 미상무부, 노동통계청(BLS), 미시건대, 컨퍼런스보드

물가

물가는 연준의 장기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2021년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확산되었다. 1월 물가는 재화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경제재개 이후 서비스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2월에는 1982년 2월 6.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3월 대부분의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1982년 1월 6.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4월 자동차·휘발유 등 재화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승세가 확대되며 1982년 1월 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 이후 여전히 6%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PCE 물가 및 소비자 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CE물가	5.8 (0.5)	6.0 (0.5)	6.4 (0.6)	6.8 (1.0)	6.4 (0.2)	6.5 (0.6)	7.0 (1.0)	6.4 (-0.1)	6.2 (0.3)	6.2 (0.3)	6.0 (0.3)
근원 PCE 물가	5.0 (0.5)	5.1 (0.4)	5.3 (0.3)	5.4 (0.4)	5.0 (0.3)	4.9 (0.4)	5.0 (0.6)	4.7 (0.1)	4.9 (0.5)	5.1 (0.5)	5.0 (0.2)
소비자물가지수 (CPI)	7.0 (0.6)	7.5 (0.6)	7.9 (0.8)	8.5 (1.2)	8.3 (0.3)	8.6 (1.0)	9.1 (1.3)	8.5 (0.0)	8.3 (0.1)	8.2 (0.4)	7.7 (0.4)

▲ 주: ()는 전월대비(%) / 자료: 미노동통계국,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2/1 발표자료

(4) 고용시장

고용시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노동수요가 지속되고 노동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3~4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5월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다. 6~7월에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수와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세가 견조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9월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10월 취업자수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지속되어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실업률

실업률은 1월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가 소폭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4%로 시작하였다. 2월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가 감소하는 등 팬데믹 관련 실업자수가 하락하면서 3.8%를 기록하였으며 3월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3.6%까지 하락하였다. 4~6월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는 소폭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는 가운데 3.6%를 유지하였다. 6월 3.5%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3.5%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8월 경제활동참

가율은 상승하고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는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3.7%로 상승하였다. 9~10월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 가운데 실업률은 각각 3.5%, 3.7%를 기록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1월 전월에 비해 상승한 62.2%로 개선되었으며 2월 노동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3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62.4%를 기록하였으며 4월 소폭 하락하였으며 5월과 6월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7월 소폭 상승하였으며 8월 다시 62.4%를 기록하였다. 9~10월 각각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비농업취업자수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월 건설업, 광업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소매판매, 운수·창고업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2월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건설업, 광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며 3월 서비스업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4~5월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부문도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크게 증가하고 지방 정부의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부문도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8월 정부부문과 여가·음식숙박업 등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9월 정부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0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 등 모든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당 평균노동시간 및 평균임금

제조업 평균임금은 1월 24.57달러로 구인난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2월 견조한 고용회복 흐름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6월을 제외하고 3~10월 전월에 비해 상승하여 10월 25.37달러를 기록하였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월 34.7시간을 제외하고 1~5월 34.6시간을 기록하였다. 6월 이후 34.5시간을 유지하였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1~10월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고용시장 주요지표

(전년동월대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 (만명)	22.9	19.5	17.8	18.9	20.7	23.2	24.8	24.1	20.7	21.9
비농업취업자수 증가 (만명)	50.4	71.4	39.8	43.6	39.0	29.3	53.7	29.2	31.5	26.1
실업률(%)	4.0	3.8	3.6	3.6	3.6	3.6	3.5	3.7	3.5	3.7
경제활동참가율(%)	62.2	62.3	62.4	62.2	62.3	62.2	62.1	62.4	62.3	62.2
주당평균노동시간(시간)	34.6	34.7	34.6	34.6	34.6	34.5	34.5	34.5	34.5	34.5
제조업 평균임금 (달러/시간)	24.57	24.50	24.71	24.87	24.93	24.89	25.04	25.05	25.32	25.37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m/m)	0.6	0.1	0.5	0.3	0.3	0.4	0.5	0.3	0.3	0.4

▲자료 : 미노동통계청

(5) 주택시장

주택시장은 2022년 상반기 수급불균형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차입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판매가 위축되는 등 호조세가 둔화되었다. 하반기에도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거래량 감소, 주택착공 건수 부진,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주택시장이 둔화되었다.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구매력이 축소되면서 거래량 감소가 심화되었다.

기존주택판매

기존주택판매는 1월 전년동기의 높은 판매증가율에 따른 기조효과,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다.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 부담 증가로 2월~4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3.8%, 4.8%, 6% 감소하였다. 5월과 6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8.6%, 14.4% 감소하였으며 7월~9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20.1%, 20.2%, 23.8%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규주택판매

신규주택판매도 주택구입 부담 증대로 인해 1월~10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1월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하였으며 3월과 4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19.8%, 23.5% 감소하였다. 6월과 7월에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20%, 25.2%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8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며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9월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하였다. 5월과 8월 전월대비 10.7%, 28.8%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1월~10월 각각 전월대비 신규주택판매가 감소하였다.

주택허가건수 및 주택착공건수

주택허가건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였으나 2월~7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8월 전년동기대비 13%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9월 전년동기대비 3.2%로 하락폭이 감소하였다. 한편 임대료 수익이 높아지면서 단독주택 착공이 감소한 반면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주택이 전체 착공 건수가 증가하였다. 주택착공건수는 1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데 이어 2월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하였다. 3월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4월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7월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8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여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9월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 주택시장 현황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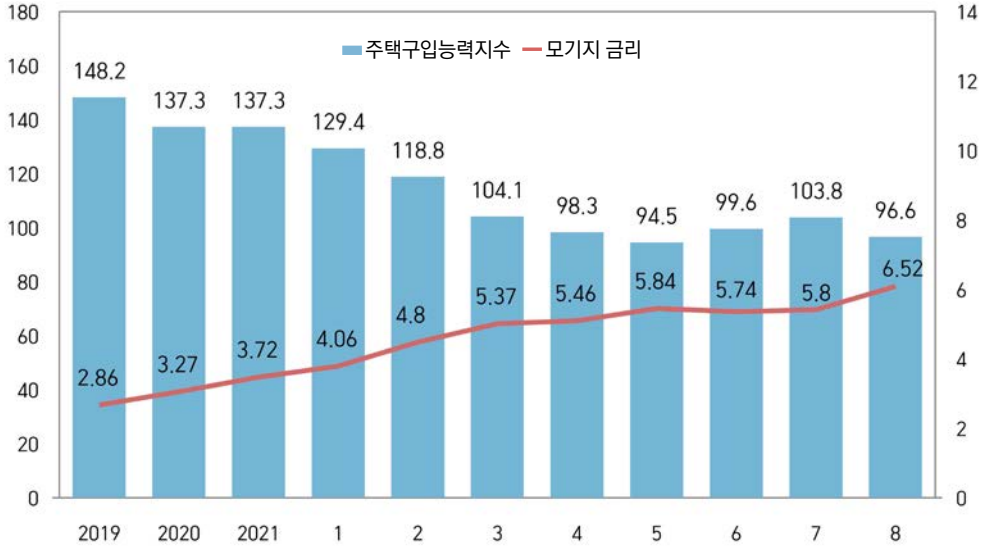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존주택판매	-2.4 (6.7)	-3.9 (-7.2)	-4.8 (-2.7)	-6.0 (-2.4)	-8.6 (-3.4)	-14.4 (-5.4)	-20.1 (-5.9)	-20.2 (-0.4)	-23.8 (-1.5)
신규주택판매	-8.8 (-4.5)	2.9 (-2.0)	-19.8 (-8.6)	-23.5 (-16.6)	-14.1 (10.7)	-20.0 (-8.1)	-25.2 (-12.6)	-1.3 (28.8)	-17.6 (-10.9)
주택허가건수	-0.1 (0.7)	6.5 (-1.9)	6.0 (0.4)	3.3 (-3.2)	0.2 (-7.0)	2.1 (-0.6)	1.8 (-1.3)	-13.0 (-10.0)	-3.2 (1.4)
주택착공건수	4.0 (-4.1)	24.3 (6.8)	0.3 (0.3)	19.9 (-0.2)	-2.7 (-14.4)	-5.3 (-2.0)	-12.5 (-9.6)	-0.6 (12.2)	-7.7 (-8.1)

▲ 주: ()는 전월대비(%) / 자료: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미센서스국

주택 모기지 금리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능력지

수가 하락하였다. 특히 5월 94.5까지 하락하며 1989년 6월 98.3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주택구입능력지수 및 모기지 금리



▲ 주: 모기지 금리 30년물, 월말 기준(%)

자료: 미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 주택구입능력지수(HOAM index) 애틀랜타 연준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S&P Case-Shiller 지수)

주요 도시 평균주택가격은 1월 전년동기대비 18.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이후에도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5월~7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21.2%, 21.2%, 20.5%를 기록하였다. 1월~8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9월 전월대비 0.4% 하락하였다.

미국 2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현황

(전년동기대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1.2	1.5	1.85	2.4	2.4	1.8	1.3	0.4	-0.4
전년동기대비	18.3	18.6	19.1	20.2	21.2	21.2	20.5	18.6	16.1

▲ 주 : ()는 전월대비(%) / 자료: S&P

2. 금융 시장

2022년 금융시장은 금리 상승, 주가 하락, 스프레드 확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긴축되었다. 금리(국채 10년)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확대, 연준 통화긴축 정책 가속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가는 연준의 통화긴축,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 경기침체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등으로 연초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시현하였다.

(1) 금 리

시장금리

2022년 시장금리(국채 10년)는 1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의 영향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작하였다. 2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3월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 확산 등으로 상승하였다. 4월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5월 지정학적 불확실성,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경기침체 우려, 가상자산 가격급락 등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하락하였다. 6월 다시 상승하였다가 7월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다. 8월 고용지표 개선,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9월에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경기둔화 우려 속에 단기금리(국채 2년)가 연준의 긴축 우려의 영향으로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차(10년물-2년물) 역전폭이 확대되었다. 10월 말 4.22%를 기록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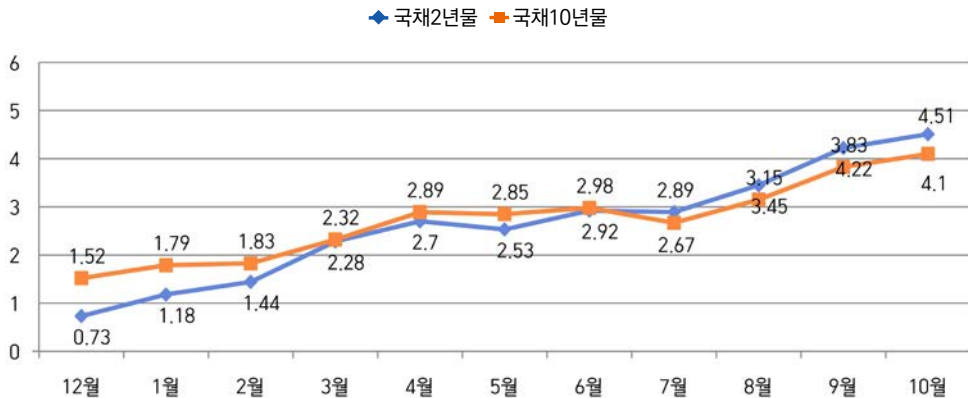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채 3개월물	0.06	0.22	0.35	0.52	0.85	1.16	1.72	2.41	2.96	3.33	4.22
국채 2년물	0.73	1.18	1.44	2.28	2.70	2.53	2.92	2.89	3.45	4.22	4.51
국채 5년물	1.26	1.62	1.71	2.42	2.92	2.81	3.01	2.07	3.30	4.06	4.27
국채 10년물	1.52	1.79	1.83	2.32	2.89	2.85	2.98	2.67	3.15	3.83	4.10
국채 30년물	1.90	2.11	2.17	2.44	2.96	3.07	3.14	3.00	3.27	3.79	4.22

▲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11/18 발표 자료

국채 2년물 및 국채 10년물 증감률 추이



▲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11/18 발표 자료

회사채 스프레드

2022년 회사채 스프레드는 1월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작동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2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 발생 우려, 위험자산 회피 심리 등으로 인해 확대되었다. 3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폭 축소되었으나 4월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위험자산 회피 심리 등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5월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6월

다시 확대되었다가 7월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8월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하락하였다가 9월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었으나 10월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축소되었다. TED 스프레드는 1월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원활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2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확대되었다. 3월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조기긴축 가능성의 영향으로 확대되었으며 4월에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5월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고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자금수요 증가로 상승하였으며 6월 크게 확대되었으나 7월과 8월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안정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9월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다시 확대되었다가 10월 영국발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하락하였다.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현황

(단위: bp)

구분	2021년	202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회사채 스프레드 ¹⁾	112	126	146	138	156	151	178	167	163	188	184
TED 스프레드 ²⁾	18	13	21	48	51	57	66	47	20	51	41

▲ 주: ¹⁾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²⁾ 3개월 LIBOR의 T-bill 대비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2) 주 가

주가는 1월과 2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조,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하였다 3월 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기업수익 개선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4월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 우려, 금리 상승,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5월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여 전월말 수준으로 마감하였다. 6월 기업실적 악화 전망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7월 기술기업의 실적 호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

대로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다. 8월 연준의 긴축 경계로 하락하였으며 9월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로 급락하여 다우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9,000선 아래로 하락하였다. 10월 영국발 금융불안 완화,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저가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11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주가 현황

(단위: bp)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S&P 500	4,516	4,374	4,530	4,132	4,132	3,785	4,130	3,955	3,586	3,872	4,080
다우존스	35,132	33,893	34,678	32,977	32,990	30,775	32,845	31,510	28,726	32,733	34,589
나스닥	14,240	13,751	14,221	12,335	12,081	11,029	12,391	11,816	10,970	10,988	11,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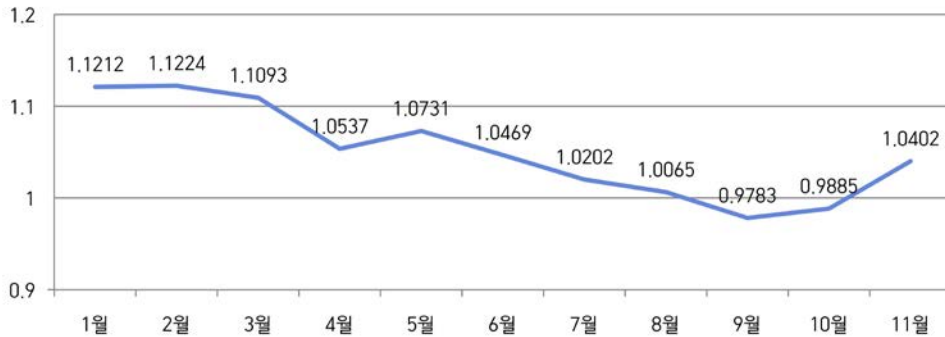
▲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Bloomberg

(3) 환율

달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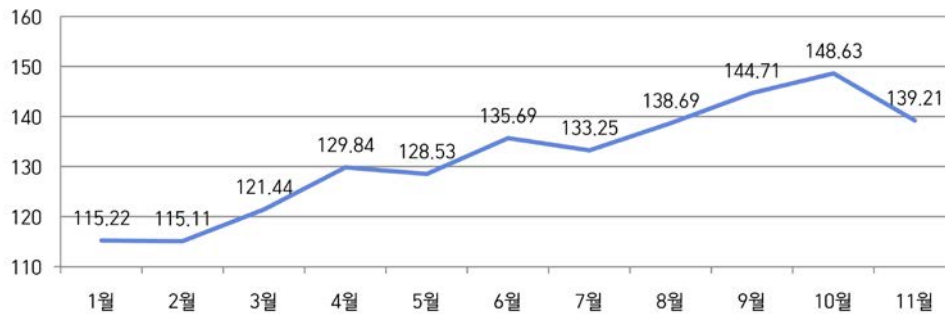
달러화는 1월 국채 금리 상승,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등의 강세요인과 원자재 관련 통화 강세,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등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연준의 긴축 기대 등으로 강세를 시험하였으며 3월과 4월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대 등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5월 연준의 긴축정책,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국채금리 하락,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통화 강세, 유로화 강세 등으로 소폭 약세로 전환되었다. 6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7월 중순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8월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으며 9월 연준의 긴축강화, 유럽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10월 국채금리 상승 등 강세요인과 영국발 금융불안 완화에 따른 파운드화 안정,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하면서 횡보세를 보였다.

달러/유로 추이



▲자료: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엔/달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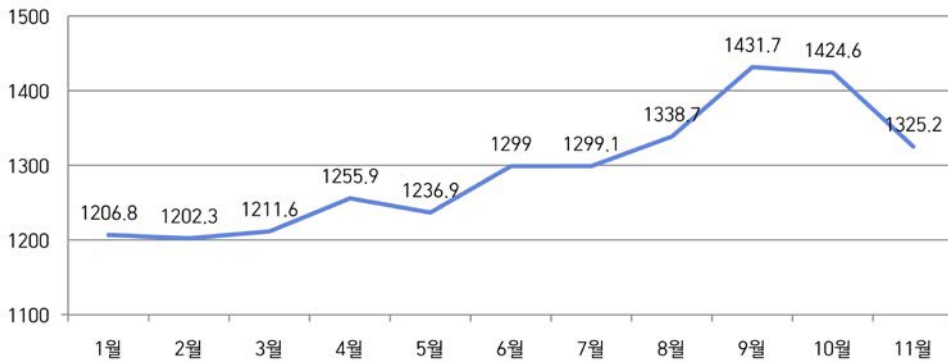
▲자료: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원화/달러

원달러 환율은 1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가속화 기대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2월 ECB 총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등으로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축소되었다. 3월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유가 급증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4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쇄조치 확대, 연준의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5월 중

국의 봉쇄조치 지속, 연준의 긴축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지만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 및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반락하였다. 6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7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가 FOMC 결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8월 위안화 약세, 유로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9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0월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원화/달러 추이



▲자료: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미국 환율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러/유로	1.1212	1.1224	1.1093	1.0537	1.0731	1.0469	1.0202	1.0065	0.9783	0.9885	1.0402
엔/달러	115.22	115.11	121.44	129.84	128.53	135.69	133.25	138.69	144.71	148.63	139.21
원화/달러	1206.8	1202.3	1211.6	1255.9	1236.9	1299.0	1299.1	1338.7	1431.7	1424.6	1325.2

▲ 주: 해당 월말 기준 / 자료: 미연준(FRB)

3. 대외 거래

(1) 수출입 총괄

미국의 무역 규모

2021년 세계 수출은 22조 668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7.97%에 해당하는 1조 7,5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22조 1,095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2.85%에 해당하는 2조 8,40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세계 수출(6월 누적)은 12조 3,838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8.17%에 해당하는 1조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12조 5,855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2.9%에 해당하는 1조 6,2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출규모 및 미국 수출규모

(십억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세계수출	18,748.76	17,367.41	22,066.83	12,383.83
미국수출	1,641.11	1,431.58	1,758.58	1,011.32
미국비중	8.75	8.24	7.97	8.17
순위	2	2	2	2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수입규모 및 미국 수입규모

(십억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세계수입	18,982.71	17,537.69	22,109.52	12,585.58
미국수입	2,498.40	2,336.57	2,840.42	1,624.10
미국비중	13.16	13.32	12.85	12.90
순위	1	1	1	1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수출

수출 규모는 2010년 전년대비 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5년 전년대비 7.2% 감소한데 이어 2016년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대비 6.3%, 7.0% 증가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대비 0.7%, 12.8% 감소하였다. 2021년 전년대비 22.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다.

수입

수입은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들어 감소하였다. 2010년 2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01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며 2016년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대비 7.0%, 8.1% 증가하였으나 2019년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2020년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나 2021년 전년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다.

미국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수출	1,641.11 (-1.4)	1,431.58 (-12.8)	1,758.58 (22.8)	1,011.32 (19.8)
수입	2,498.40 (-1.7)	2,336.57 (-6.5)	2,840.42 (21.6)	1,624.10 (20.8)
수지	-857.28	-904.99	-1,081.83	-612.78

▲ 주: ()는 전년대비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등이다. 2022년(6월 누적) 미국의 전체 교역액은 3조 5,459억 달러이며, 주요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은 2조 2,503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63.46%를 차지

하였다. 10대 교역국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캐나다(23.85%), 멕시코(23.11%), 중국(20.69%)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5.9%)은 7위를 기록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입

(백만 달러, %)

순위	전체 및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수지	교역액	비중
	10개국 총계	865,478	1,384,889	-519,412	2,250,367	100
1	캐나다	237,230	299,494	-62,264	536,724	23.85
2	멕시코	217,938	302,185	-84,247	520,123	23.11
3	중국	96,820	368,755	-271,936	465,575	20.69
4	일본	54,172	98,114	-43,942	152,286	6.77
5	영국	48,848	40,725	8,123	89,573	3.98
6	독일	48,180	91,684	-43,504	139,864	6.22
7	한국	47,635	75,864	-28,229	123,499	5.49
8	네덜란드	47,021	23,907	23,114	70,928	3.15
9	브라질	36,609	25,416	11,193	62,025	2.76
10	인도	31,025	58,745	-27,720	89,770	3.99

▲ 주: 2022년 6월 누적 교역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독일, 브라질, 인도 등으로 2021년 미국의 수출은 인도(43.5%), 브라질(33.8%), 멕시코(30%), 한국(28.4%), 중국(21.2%), 캐나다(20.3%), 네덜란드(17.7%), 일본(17%) 등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2022년(6월 누적)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네덜란드(36.3%), 브라질(23.3%), 인도(21.5%), 영국(20.4%), 멕시코(20.2%), 캐나다(18.6%), 독일(12.6%), 일본(10.9%), 한국(7.2%), 중국(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1년		2022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캐나다	307,001	20.3	237,230	18.6
2	멕시코	276,459	30	217,938	20.2
3	중국	151,065	21.2	96,820	2.9
4	일본	74,970	17	54,172	10.9
5	영국	61,463	4.2	48,848	20.4
6	독일	65,174	12.8	48,180	12.6
7	한국	65,772	28.4	47,635	7.2
8	네덜란드	53,580	17.7	47,021	36.3
9	브라질	46,882	33.8	36,609	23.3
10	인도	40,130	46.5	31,025	21.5

▲ 주: 2022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입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한국 등으로 2021년 미국의 수입은 인도(43.1%), 캐나다(32.1%), 베트남(28%), 대만(27.7%), 한국(24.9%), 멕시코(18.2%), 독일(17.5%), 중국(16.3%), 일본(13.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22년(6월 누적)에도 주요 수입국에 대한 수입 증가가 이어졌다. 베트남(32.9%), 캐나다(30.6%), 대만(27.8%), 인도(27%), 한국(23.1%), 멕시코(20.7%), 중국(17.8%), 아일랜드(13.8%), 일본(7%) 순으로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1년		2022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중국	506,367	16.3	368,755	17.8
2	멕시코	384,705	18.2	302,185	20.7
3	캐나다	357,160	32.1	299,494	30.6
4	일본	135,133	13.1	98,114	7
5	독일	135,224	17.5	91,684	3
6	베트남	101,908	28	86,962	32.9
7	한국	94,955	24.9	75,864	23.1
8	대만	77,138	27.7	61,674	27.8
9	인도	73,261	43.1	58,745	27
10	아일랜드	73,718	12.6	52,969	13.8

▲ 주: 2022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 자료: kita.net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2021년(6월 누적)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은 석유 화학이며, 10대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석유화학 및 기타화학으로 전년대비 91.7% 증가하였다. 미국의 수입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10대 수입품목 중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화학으로 전년대비 70.6% 증가하였다.

수출

미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집적회로가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1.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수출 품목 1위(수출액 기준)는 석유 화학으로 2021년 전년대비 39.9%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74.8% 증가하였다.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2021년 전년대비 37.9%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77.6%로 크게 증가하였다.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는 2021년 전년대비 102.8%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58.6% 증가하였다. 상업용 비행기는 2021년 11.1%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다. 전화기 및 영상 송수신기는 2021년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면역물품은 2021년 전년대비 68.1%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수출 품목별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9년		2020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2710	석유화학	84,937	39.9	91,874	74.8
2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69,356	37.9	76,415	77.6
3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	67,616	102.8	64,384	58.6
4	8800	상업용 비행기	79,510	11.1	59,556	20.9
5	8703	승용차 및 기타 차량	54,682	19.8	37,159	0.5
6	8542	전자집적회로	52,817	19.5	34,390	-1.9
7	9880	전화기 및 영상 송수신기	43,080	25	33,978	24
8	3002	면역물품	43,858	68.1	28,849	18
9	8708	자동차용 부품	35,640	7.5	27,066	13.5
10	7108	금(백금 포함, 비가공 1차제품)	27,719	34.8	24,109	16.4

▲ 주: 2022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 자료: kita.net

수입

미국의 수입품목 1위(수입액 기준)는 원유로 2021년 전년대비 73.9%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70.1%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2021년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자동차료처리기기

는 2021년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유·무선 통신기기는 2021년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2021년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수출 후 반품제품은 2021년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5%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2021년 전년대비 80.5%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41.1%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2021년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면역물품은 2021년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전년대비 5.7%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수입 품목별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6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2709	원유	133,060	73.9	138,284	70.1
2	8703	자동차	146,044	1.7	105,976	7
3	8471	자동자료처리기기	116,525	12.4	80,903	11.1
4	8517	유·무선 통신기기	109,483	17	77,066	24.4
5	3004	의약품	83,992	3.2	60,766	8.2
6	9801	수출 후 반품제품	92,500	18.8	58,853	5
7	2710	석유화학	62,248	80.5	57,280	41.1
8	8708	자동차 부품	71,553	22.2	54,705	13.7
9	3002	면역물품	58,078	13.3	39,773	5.7
10	8542	전자집적회로	41,065	29.2	28,854	7.5

▲ 주: 2022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 자료: kita.net

(4) 한미 교역 현황

한미 교역 규모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2022년(9월 누적) 수출 기준과 수입 기준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미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18.8%)과 수입(-24.3%)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수출(32.3%)과 수입(39.1%)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상품 교역규모는 2011년 1,007억 달러에서 2013년 1,0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과 2016년 대미수출 및 수입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되면서 교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 대미수출 및 수입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대미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7.4%, 16% 증가하였다. 2020년 대미수출은 7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대미수입은 574억 달러로 7.1% 감소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1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29.4%, 27.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9월 누적)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대미 수입은 9.6%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11억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한국의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250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6년 23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226억 달러에 이어 2022년(9월 누적)에도 2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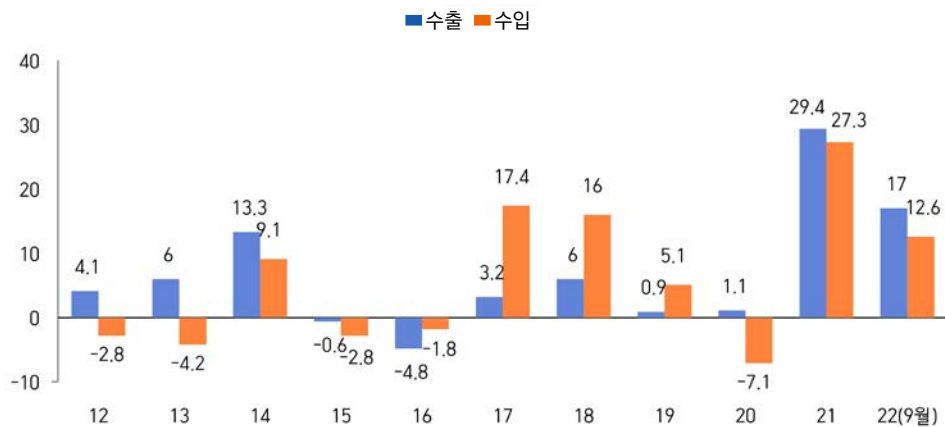
한미 교역 추이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2012년	58,525	4.1	43,341	-2.8	15,184
2013년	62,052	6.0	41,512	-4.2	20,540
2014년	70,285	13.3	45,283	9.1	25,002
2015년	69,832	-0.6	44,024	-2.8	25,808
2016년	66,462	-4.8	43,216	-1.8	23,246
2017년	68,610	3.2	50,749	17.4	17,861
2018년	72,720	6.0	58,868	16.0	13,852
2019년	73,344	0.9	61,879	5.1	11,465
2020년	74,116	1.1	57,492	-7.1	16,624
2021년	95,902	29.4	73,213	27.3	22,689
2022년 (9월 누적)	82,974	17	61,787	12.6	21,187

▲ 자료: kita.net

대미 수출업 증감(%)



▲ 주: 전년대비 / 자료: kita.net

품목별 수출 현황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2021년 959억 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으며 2022년(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17.0% 증가한 8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1위는 차량 및 부속품으로 2021년에는 전년대비 13.7% 증가한 239억 달러, 2021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20.5%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광물성 연료(104.0%), 철강(103.4%), 철강 제품(61.0%), 유기화학품(58.2%), 플라스틱(48.7%), 원자로 및 보일러(25.4%), 전기기기(24.7%) 등 주요 수출품목들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고무 제품(-6.6%)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9월 누적) 유기화학품(65.9%), 철강(61.0%), 광물성 연료(40.6%), 고무 제품(24.3%) 등 주요 수출품목들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대미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9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95,902	29.4	82,974	17
1	87	차량 및 부속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23,976	13.7	21,594	20.5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20,939	25.4	16,549	10.4
3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8,011	24.7	15,341	13.2
4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810	104	4,877	40.6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389	48.7	3,713	14.7
6	73	철강 제품	2,451	61	2,684	61
7	72	철강	2,163	103.4	1,915	23.1
8	29	유기화학품	1,414	58.2	1,860	65.9
9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 부분품과 부속품	1,866	17.9	1,491	11.5
10	40	고무와 그 제품	1,347	-6.6	1,253	24.3

▲자료: kita.net

품목별 수입 현황

한국의 대미수입액은 2021년 전년대비 27.3% 증가한 732억 달러였으며, 2022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12.6% 증가한 6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입품목 1위는 광물성 연료로 2021년에는 전년대비 67.2% 감소한 198억 달러, 2022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43.3%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의료용품(39.5%), 차량 및 부속품(38.5%), 원자로 및 보일러(27.2%), 육/식용 설육(16.8%), 광학기(16.0%) 등 주요 수입품목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유기화학품(-6.8%)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9월 누적) 육/식용 설육(31.3%), 항공기(27.9%), 플라스틱(5.9%), 유기화학품(4.6%), 의료용품(1.7%)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원자로 및 보일러(5.6%), 차량 및 부속품(-1.0%), 전기기기(-4.1%), 광학기(-3.1%), 차량 및 부속품(-1.0%)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대미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9월 누적)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73,213	27.3	61,787	12.6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19,846	67.2	20,600	43.3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10,255	27.2	7,465	-5.6
3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6,435	6.1	4,653	-4.1
4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 부분품과 부속품	4,777	16	3,531	-3.1
5	87	차량 및 부속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4,027	38.9	3,186	-1
6	02	육, 식용설육	2,667	16.8	2,606	31.3
7	30	의료용품	2,145	39.5	1,597	1.7
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	1,770	3.3	1,501	27.9
9	29	유기화학품	1,862	-6.8	1,490	4.6
10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669	3.1	1,331	5.9

▲자료: kita.net

가공 단계별 현황

2022년(9월 누적) 한국의 가공 단계별 대미수출은 소비재(6.7%), 중간재(27%)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1차 상품(-13.1%), 자본재(-0.3%), 기타(-5.2%)는 감소하였다. 가공 단계별 대미수입은 1차 상품(41.3%), 소비재(7.8%), 중간재(9.4%), 기타(7.6%)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자본재(-5.5%)는 감소하였다.

가공 단계별 수출입 현황

(백만 달러, %)

산업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차 상품	97	-13.1	14,870	41.3	-14,773
소비재	19,239	6.7	10,774	7.8	8,465
자본재	12,287	-0.3	9,151	-5.5	3,136
중간재	51,281	27	26,864	9.4	24,417
기타	70	-5.2	128	7.6	-58

▲ 주: 2022년 9월 가공 단계별 수출입 누적 기준 / 자료: kita.net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일반

한국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10,622건, 신고금액은 1,105억 4,600만 달러였으며 2022년(6월)의 신고 건수는 5,549건, 신고금액은 567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11년 165억 8,800만 달러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69억 9,800만 달러, 58억 6,3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94억 6,400만 달러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05억 5,400만 달러, 179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각각 137억 7,100만 달러, 127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년 171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하락한 1,932건이었으나 신고금액은 185억 7,000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2022년 신고금액은 373억 3,700만 달러를 크게 증가하였으면 2022년(6월 누적) 신고금액은 19,88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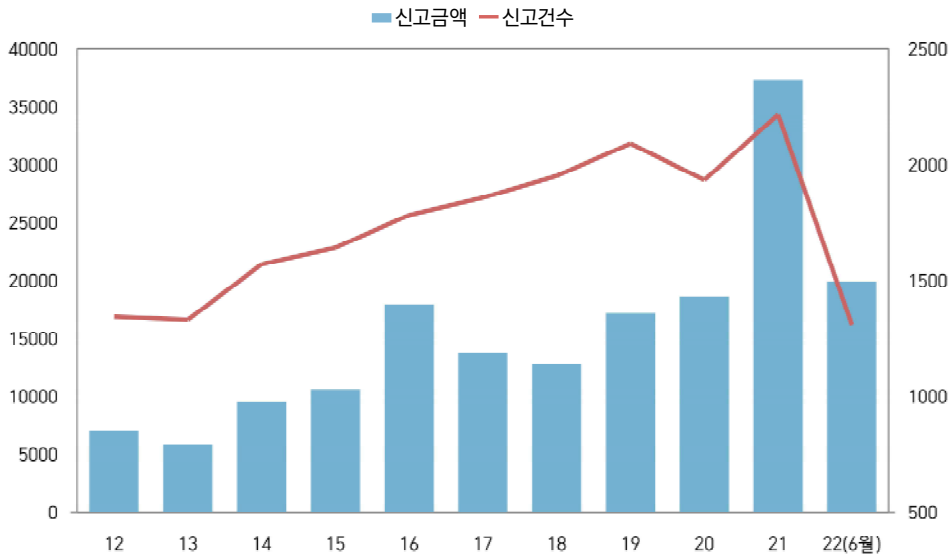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 투자	13,735	83,821	10,611	72,010	10,622	110,546	5,549	56,721
미국	2,090	17,148	1,932	18,570	2,215	37,337	1,307	19,884
케이만군도	517	13,983	370	7,665	577	17,881	276	9,968
룩셈부르크	181	5,226	150	5,683	216	8,007	123	3,227
중국	1,345	5,937	914	4,696	883	12,544	340	2,917
싱가포르	528	4,315	502	5,659	478	1,933	362	2,658
베트남	3,095	6,661	2,124	3,018	1,598	2,848	747	2,266
오스트레일리아	119	880	122	985	128	2,261	57	2,010
캐나다	115	4,682	92	2,566	100	3,416	59	1,611
저지	70	1,345	10	246	14	1,234	4	1,577
인도네시아	431	1,544	353	1,166	369	2,411	158	1,141
영국	152	2,791	115	1,738	116	1,449	77	792
헝가리	100	889	101	203	90	858	59	712
홍콩	395	2,902	249	2,071	217	1,161	101	628
폴란드	134	1,185	105	773	130	608	78	625
멕시코	127	574	133	304	182	308	85	502

▲ 주: 2022년 6월 누적 신고금액 순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추이(%)



▲ 주: 2022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의 업종별 대미 직접투자

2022년(6월 누적)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신고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체의 31.06%인 61억 7,582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19년 72억 1,433만 달러에서 2020년 65억 7,979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88억 1,867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2019년 39억 9,537만 달러에서 2020년 26억 8,06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53억 4,90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6월 누적) 54억 4,62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동산업은 2019년 25억 3,003만 달러에서 2020년 33억 2,659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53억 4,566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6월 누적) 27억 87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들 업종 이외에도 정보통신업(8.98%), 도소매업(6.7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15%) 전문 서비스업(11.42%) 운수 및 창고업(1.35%)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미 직접투자 업종별 현황

(단위: 천 달러)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합계	7,214,333	6,579,795	18,818,677	6,175,824
금융 및 보험업	3,995,379	2,680,600	5,349,012	5,446,294
부동산업	2,530,031	3,326,590	5,345,661	2,708,715
제조업	317,102	2,817,708	2,716,743	1,785,5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5,352	621,477	1,523,703	1,342,751
도매 및 소매업	431,071	561,017	517,036	1,222,177
정보통신업	493,715	517,826	1,712,253	611,933
운수 및 창고업	2,500	300	7,792	340,5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21,635	993,734	52,526	77,27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250	89,408	326,739	49,030
광업	44,870	27,464	43,524	36,869
건설업	58,962	55,668	90,396	21,546
숙박 및 음식점업	752,462	134,459	720,656	21,070
농업, 임업 및 어업	32,305	28,725	23,000	20,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190	41,660	7,240	8,4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406	2,840	8,422	7,8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43	1,580	42,212	5,742
교육 서비스업	2,000	89,558	31,300	2,000

▲ 주: 2022년 6월 누적(잠정치), 2021년 신고금액순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자 규모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2021년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개인기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175억 9,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1.8%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05.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6월 누적) 직접투자 규모는 198억 8,400만 달러로 대기업 120억 3,600만 달러, 중소기업 36억 1,700만 달러, 개인기업 900만 달러, 개인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합계	2,090	17,148	1,932	18,570	2,215	37,337	1,307	19,884
대기업	461	8,958	497	10,238	614	17,595	345	12,036
중소기업	1,183	5,343	1,000	3,666	1,186	7,517	691	3,617
개인기업	33	16	38	33	20	13	9	9
개인	373	325	354	197	350	545	221	176
기타	40	2,506	43	4,437	45	11,668	41	4,046

▲ 주: 2022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2021년 투자비율별 직접투자는 100% 투자가 263억 4,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50%초과~100%미만 투자는 53억 8,900만 달러, 10%이상~50%미만 투자는 52억 3,900만 달러, 10% 미만 투자는 3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6월 누적) 직접투자는 100% 투자가 138억 6,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10%이상~50%미만 투자는 42억 2,500만 달러, 50%초과~100%미만 투자는 15억 4,100만 달러, 10% 미만 투자는 2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0%미만	197	262	130	231	100	353	56	248
10%이상-50%미만	174	2,603	190	1,967	219	5,239	115	4,225
50%	35	90	21	2,019	19	12	5	5
50%초과-100%미만	232	2,205	232	2,934	255	5,389	143	1,541
100%	1,452	11,988	1,359	11,418	1,622	26,344	988	13,865

▲ 주: 2022년 6월 누적(잠정치)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Ⅲ 국제 통상 이슈

1. 글로벌 공급망
(GSC; Global Supply Chain)
2. 세계 에너지 시장
3.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4. 세계정치환경 변화

1. 글로벌 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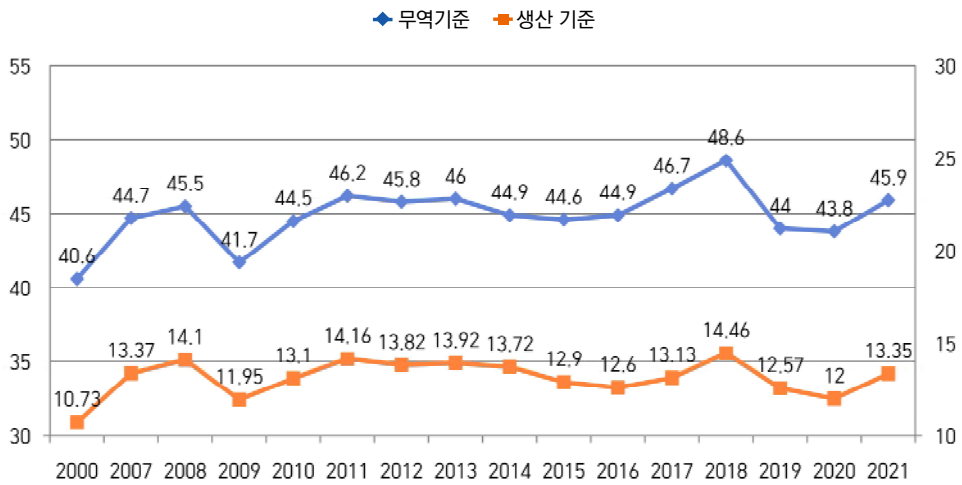
(1) GSC의 변화

지난 20년간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GSC)은 공급망 최적화와 효율성 극대화의 관점에서 구축되어 왔다. 공급망이 복합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결함이 해당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였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자원의 글로벌 순환이 제한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이 국제질서와 주도권 경쟁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코로나 19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그동안의 국제적 분업체계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에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은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구축한 가치사슬을 공략하면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피해졌다. 최근 경제 안보 개념이 부각되면서 동맹국 간의 협력인 '프렌드 쇼어링'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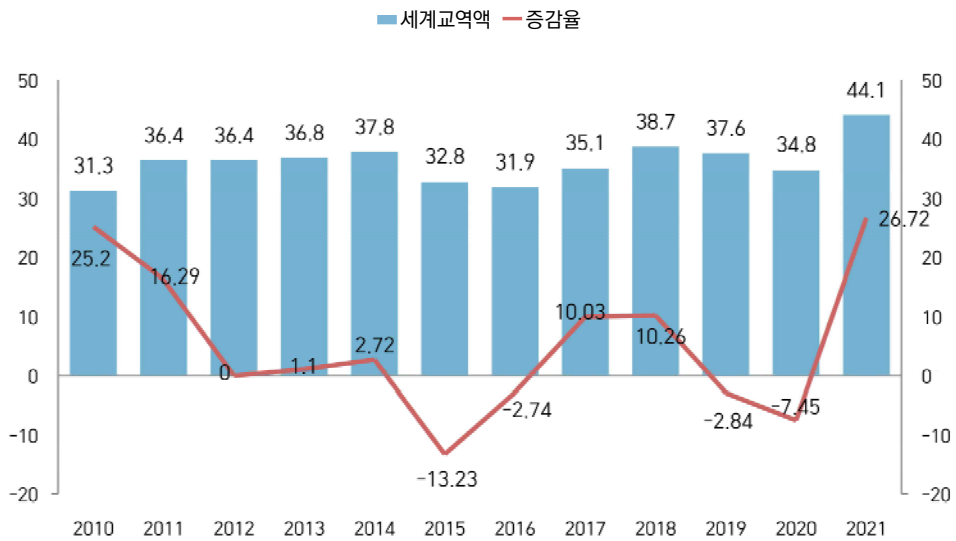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율은 약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강화되었으며 2011년 46.2%(무역 기준), 14.16%(생산 기준)을 기록하였다. 2014년 이후 주춤하다가 2018년 48.6%(무역 기준), 14.46%(생산 기준)를 기록하였다. 2019년 이후 크게 약화되어 2020년 43.8%(무역 기준), 12%(생산 기준)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45.9%(무역 기준), 13.35%(생산 기준)로 강화되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요 국가들은 수입 의존 하락, 자국 내 제조업 내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보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 GVC 참여율 추이



▲ 주: 2022년 7월 자료, 62개국 기준 / 자료: ADB MRIO

세계 교역액 및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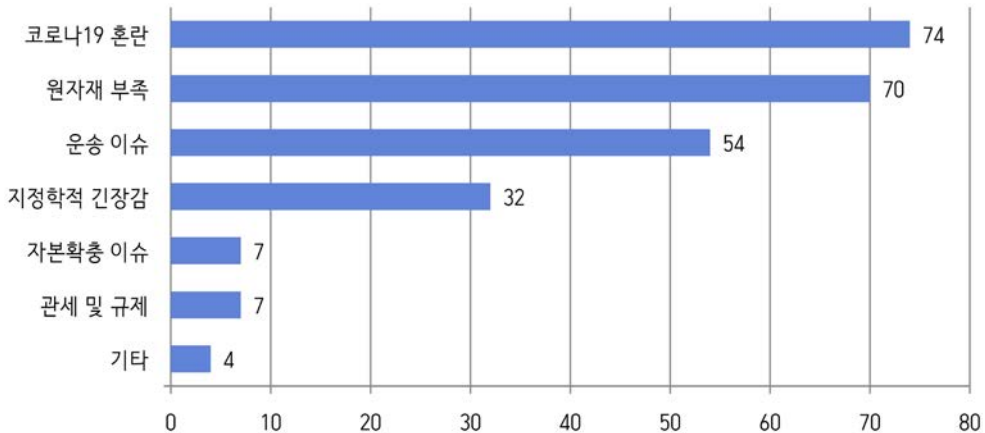


▲ 주: 세계교역액 단위(조 달러) / 자료: kita.net

(2) GSC 위기의 원인

팬데믹 이전부터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부각되었고 팬데믹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74%), 원자재 부족(70%), 운송 이슈(54%), 지정학적 긴장감(32%) 등이 지적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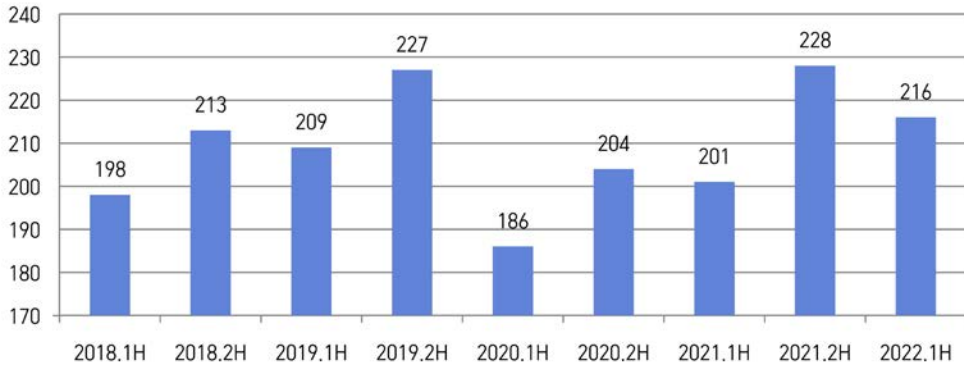


▲ 주: 2022년 3월

자료: Clarkson Research Services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설문

특히 팬데믹 초기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국경통제 등으로 운송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공급망이 제한되었다. 팬데믹의 여파로 운송 항해가 취소되면서 2020년 전반기부터 2021년 전반기까지 전 세계 Port Call Performance가 급감하였으나 2021년 후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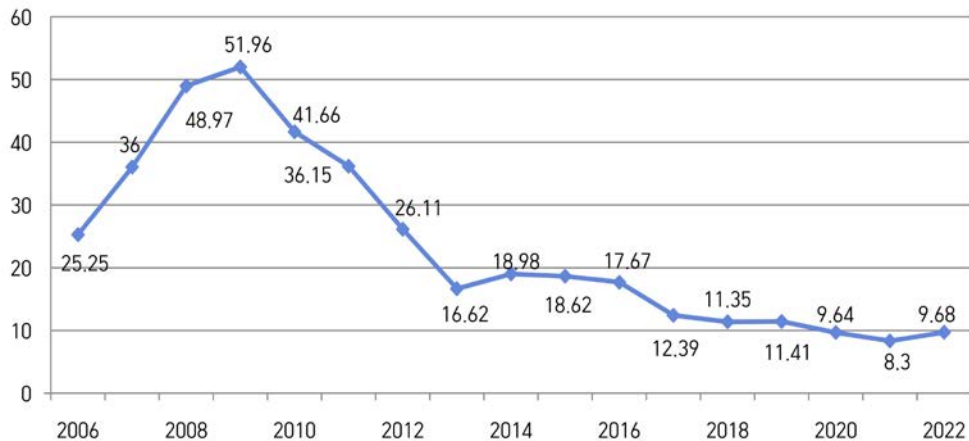
세계 Port Call Performance



▲ 주: 단위 (만 건) / 자료: UNCTAD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 수요가 증가했지만 선박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컨테이너선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컨테이너 처리 역량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전 세계 선박 규모 대비 신규 물류 역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선박 규모 대비 신규 물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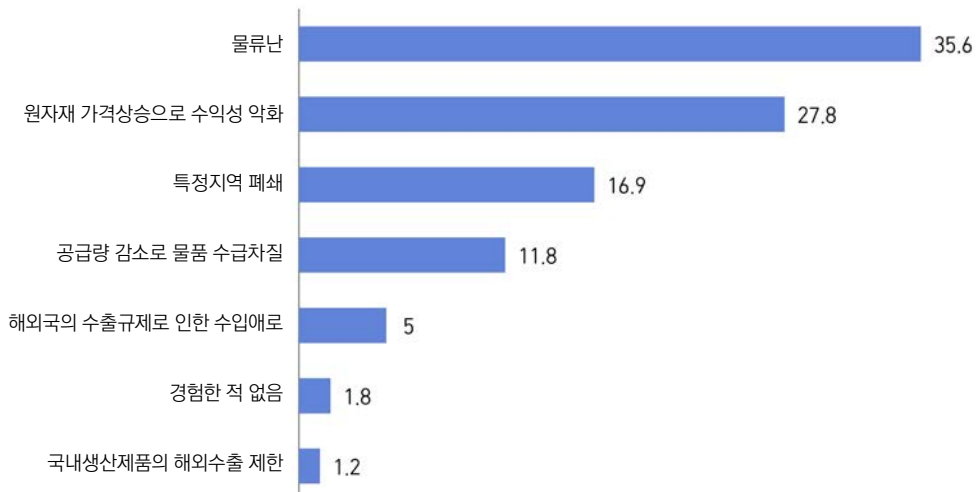


▲ 주: 2022년 4월, 매년 1월 기준

자료: Clarkson Reserach Services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물류난(35.6%)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익성 악화(27.8%)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역 봉쇄 및 수급 리스크를 겪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난은 대미 수출기업들이 많이 경험하고 특정지역 봉쇄는 동남아·중남미 수출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한국 기업의 공급망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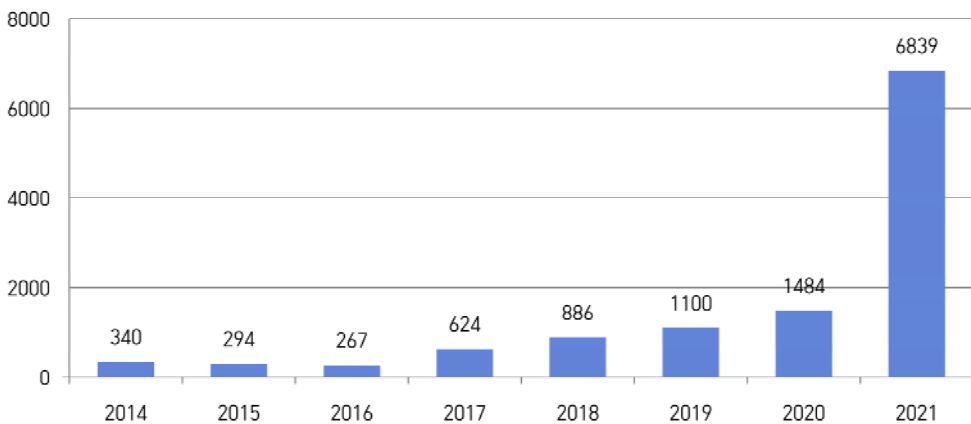
▲ 주: 단위(%), 각 항목별 복수 응답
 자료: Kita, 한국 1,094 수출기업 설문조사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가 경제안보와 함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화, 현지화, 다변화의 방향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요 무역국들이 외부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중 공급망 경쟁

미중 양국은 자국의 공급망 안정성·복원가능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하며 공급망의 탈동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 부문에서의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국가로 규정하여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로 설정하고 국가 위기상황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외적으로 협력상대국과의 신뢰 구축 및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 중심의 민주주의 기술동맹(Techno-Democracies)을 구상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글로벌 기술 공급망 재편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동맹국에 대한 기술 공급망의 탈중국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현황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은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에 대응해 국내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순환을 상호촉진한다는 '쌍순환 발전전략'과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한 과학기술의 자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외개방전략을 견지하여 외부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간 공급망 외교를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이 제정되었다. IRA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중국 견제, 물가 상승 억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4,33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용 감소, 온실가스 40%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을 계획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3,690억 달러, 노인 등 서민 의료보장에 640억 달러를 투자해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제	내 용
재정 지출	에너지 안보·기후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생산 지원: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온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300억),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 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0억),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200억)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20억) 등 * 경제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대출(\$300억),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270억), 청정 전력원/에너지 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 *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지역사회 및 환경정의 투자: 대기오염·기후변화 관련 지역사회 활동 지원, 지역간 교통 불평등 개선, 항구 대기오염 절감 보조금, 교통버스·쓰레기 수거 차량 등 대형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등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 지원 확대안 시행 기간 연장: 미국구제계획법(America Rescue Plan; ARP)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ACA 보험료 보조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 * 기타 보건 지출: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특정 백신 무료 제공, 저소득층 보조금 등
	가뭄대응	- 애리조나 지역 가뭄 대응 지원(\$50억)
재원 확보	대체 최저법인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연평균 \$10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기업은 재무이익 대비 최소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 최저 법인세율(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부과 - 미국 기준법인세율은 21%이나 기업들이 각종 공제제도 및 조세 허점을 이용해 15%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어, 대체최저세율 적용 세액이 더 클 경우 대체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 약 150~200여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50%는 제조기업일 것으로 추정)
	국세청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집행 강화, 납세 서비스 개선, 운영 지원 및 시스템 현대화 등 과세 집행 강화 - 연간 과세소득 \$40만 미만 가구 및 중소기업 과세에 대해서는 미사용 - 10년간 \$800억을 투입하여 총 \$2,040억의 세수 창출 효과 기대(CBO 추정치)
	처방약 가격개혁	*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허용, 메디케어 환자 처방약 본인부담액을 연간 \$2,000로 상한,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인상의 물가 연동제 도입
	자사주매입	* 자사주 매입(buyback)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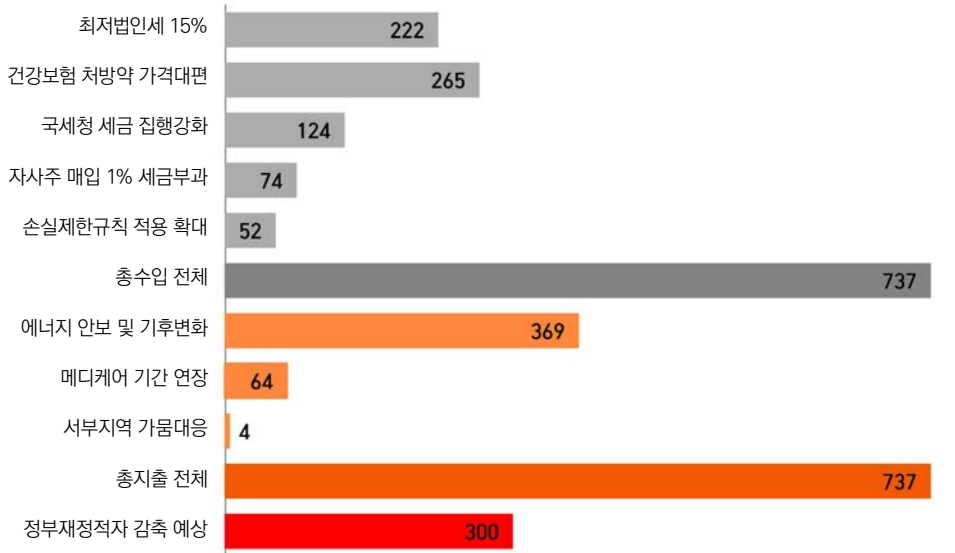
▲ 자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자료 재인용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 달러를 할당해 2023년부터 집행될 예정으로 필요한 재원은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적

극적인 세무 집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7,3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IRA 집행 예산 계획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peaker of the House(미 하원)

IRA는 중국의 공급망 견제를 위해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되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수가 많고 복잡성이 높아 GSC 효율성을 활용하는 대표적 산업으로 미국은 인센티브를 내세워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통한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IRA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주요 내용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 (63억 달러)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160억 달러)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75억 달러)	북미내 최종조립,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 달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 달러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36억 달러)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 (10억 달러)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청정전력 투자 (509억 달러)· 생산세액공제(112억 달러)	태양광·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 (30억 달러)	전기·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에너지부 대출 보증 (43억 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위해 구매 시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있다. 배터리에 중국산 주요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2024년부터 세계 혜택에서 제외되고, 중국산 핵심 광물이 들어가면 2025년부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IRA 전기차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규정

인센티브	주요 내용
보조금 지급 제한	구매자 당 신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 규정에 따라 각각 3,750달러씩 구분
차량 가격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세단 55,000달러 이하, SUV/트럭/밴 8만 달러 이하로 제한
구매자 소득 제한	부부 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5만 달러, 이외 개인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핵심광물 비중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은 미국 또는 FTA 조약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하거나 미국(북미) 내에서 재활용한 것 - 원재료 일정 비율: 2023년 40%,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이후 80% 충족
배터리 부품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 내에서 생산·조립 - 2023년 50%, 2024년~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100% 달성
완성차 조립	미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차량 조립·생산
배터리 부품	‘우려 해외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속하는 국가·단체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해당국의 법적관할권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탑재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배터리 원산지	‘우려 해외집단’에 의해 핵심 광물이 채취·정제·재활용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자료: 하나금융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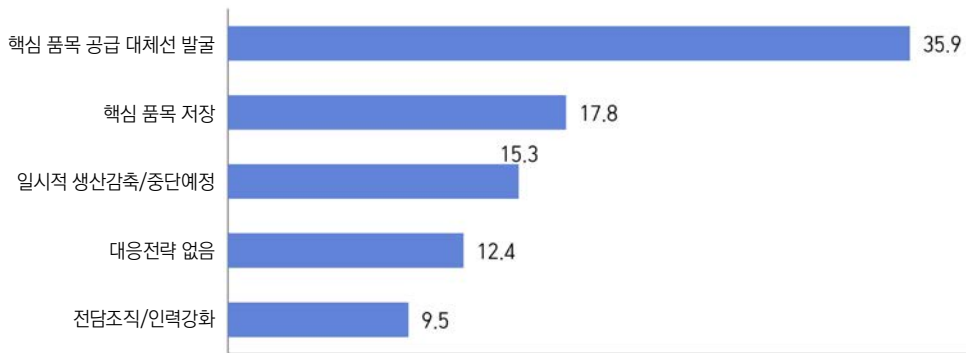
(5) GSC 재편이 변화시킬 통상환경

미중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GSC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수출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재고 비축 등을 통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공급망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주

요 무역국들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GSC의 변화 속에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핵심 품목 공급 대체선 발굴, 전담조직 강화, 인력 확충 등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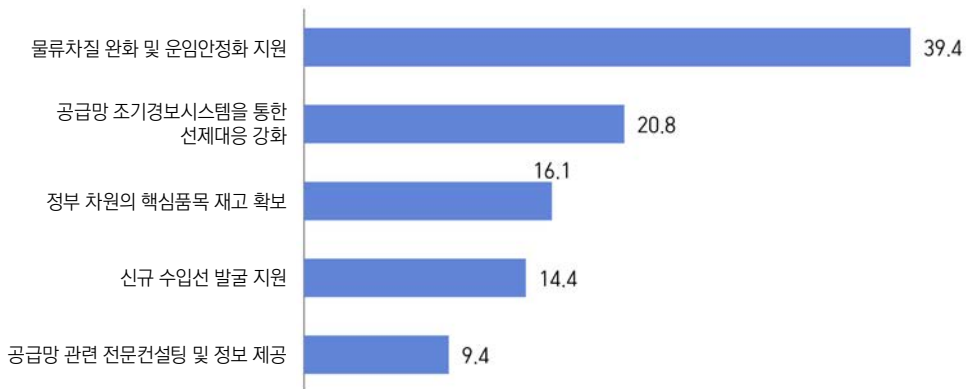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공급망 문제 관련 대응



▲ 주: 단위(%), 각 항목별 복수 응답 / 자료: Kita, 한국 1,094 수출기업 설문조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정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물류 안정화에 대한 지원,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핵심품목 비축 확대, 신규 수입선 발굴, 공급망 이슈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지원 요청사항



▲ 주: 단위(%), 각 항목별 복수 응답 / 자료: Kita, 한국 1,094 수출기업 설문조사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화 전략과 기업들의 외부 리스크 대응에 따라 GSC가 빠르게 재구축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주요 기업들의 GSC 재구축을 위해 Reshoring(자국회귀), Diversification(다변화), Regionalization(지역화)에 대한 고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고율 관세 회피,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주변 아시아국으로 이전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에 적극적이다. 경제협력과 산업 육성,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내 교역을 통해 GSC 안전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에 유리한 지역내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USMCA 체결 이후 자국 중심의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GSC 재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기존의 공급망이 20년 이상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탈중국화의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제품의 복잡성이 높고 여러 단계의 GSC를 거쳐야 하는 산업일수록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반면 제조비용이 생산기지 이전의 주된 결정요인인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기지 조정이 용이하여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전이 예상된다. 특히 섬유·의류, 가구, 기계설비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아세안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플라스틱 재료, 섬유, 기계·전기, 전자설비, 가구, 의류 등 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베트남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 압력으로 세계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RA를 통해 탈중국화를 통한 공급망 재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GSC 재편흐름에 주목하여 대외 리스크 축소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2. 세계 에너지 시장

팬데믹 이후 지속되던 국제 에너지·원자재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EU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전통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글로벌 에너지 쇼크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존재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반적인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화석연료 기업 수익 증대, 에너지 접근성 악화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가. 에너지 가격 상승

화석연료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유럽도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에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급등한 이후 안정세를 찾다가,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로 인해 8월 중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석유 가격의 경우 2022년 여름 동안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선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국제 석탄 가격인 호주 뉴캐슬 석탄 가격은 8월 17일 기준 410.9 달러/톤으로 최초로 400달러를 넘어선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300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IEA는 전세계 전기요금 인상분의 90%가 가스 및 석탄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국제 유가 추이

(단위: 달러/Bbl)

구분		Dubai	Brent	WTI
2021년	11월	79.80	80.77	79.18
	12월	72.76	74.31	71.53
2022년	1월	83.11	85.53	83.12
	2월	93.13	95.76	91.74
	3월	113.11	115.59	108.49
	4월	102.68	105.78	101.78
	5월	108.32	112.37	109.60
	6월	115.73	120.08	114.59
	7월	106.48	108.92	99.85
	8월	97.75	98.60	91.57
	9월	90.63	90.16	83.87
	10월	90.59	93.13	87.26

▲ 주: Dubai (현물가격), WTI, Brent(선물가격) / 자료: World Bank 2022.11.2 발표자료

국제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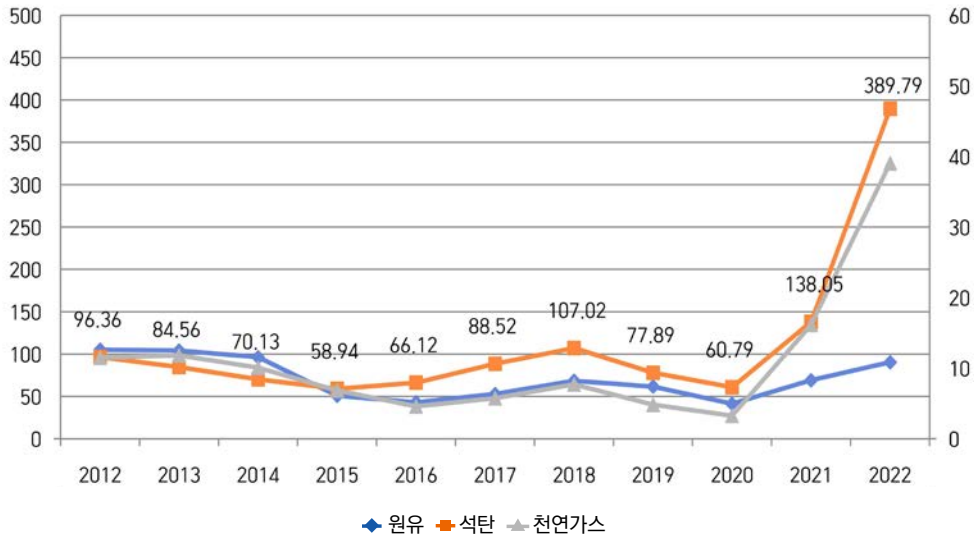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달러/MMBtu)

		석탄		천연가스	
		호주	남아프리카	미국	EU
2021년	11월	157.48	128.00	5.02	27.62
	12월	169.65	142.50	3.73	38.03
2022년	1월	196.95	168.50	4.33	28.26
	2월	219.78	196.40	4.66	27.23
	3월	314.04	294.42	4.88	42.39
	4월	310.85	302.00	6.53	32.20
	5월	371.86	280.00	8.14	29.17
	6월	374.08	313.46	7.67	33.56
	7월	402.20	329.82	7.26	51.33
	8월	406.97	318.28	8.79	70.04
	9월	430.81	321.48	7.76	59.10
	10월	389.79	326.60	5.62	39.02

▲ 자료: World Bank

최근 10년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단위: 달러/Bbl, 달러/톤, 달러/MMBtu)



▲ 주: 2022년은 10월 기준 / 자료: World Bank

나. 화석연료 기업 수익 증대

에너지 위기로 물가 상승 압박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게는 전년 대비 2조 달러 이상의 순수익으로 호황을 맞았다.

다. 에너지 접근성 악화

I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의 인구가 신규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
었으나,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IEA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
격 상승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식량 및 에너지
에 대한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빈곤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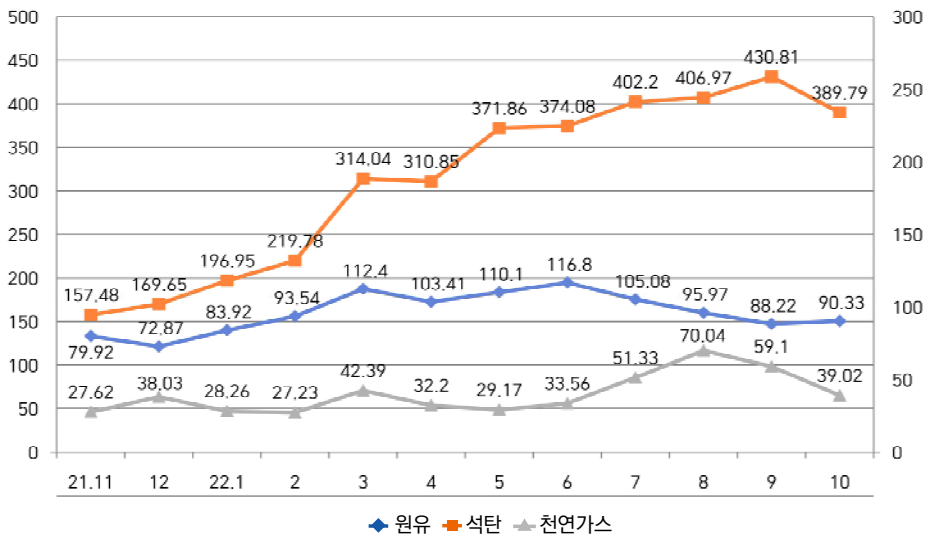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난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체 연료 공급원 마련, 가스 재고 확보, 석유·석탄 화력 발전설비의 일시적 가동률 증가, 일부 원전 계속 가동,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가속화 등의 조치를 위해 5,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19의 발생과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공급여력은 감소한 반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공급과의 불균형이 확대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 이후 주요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였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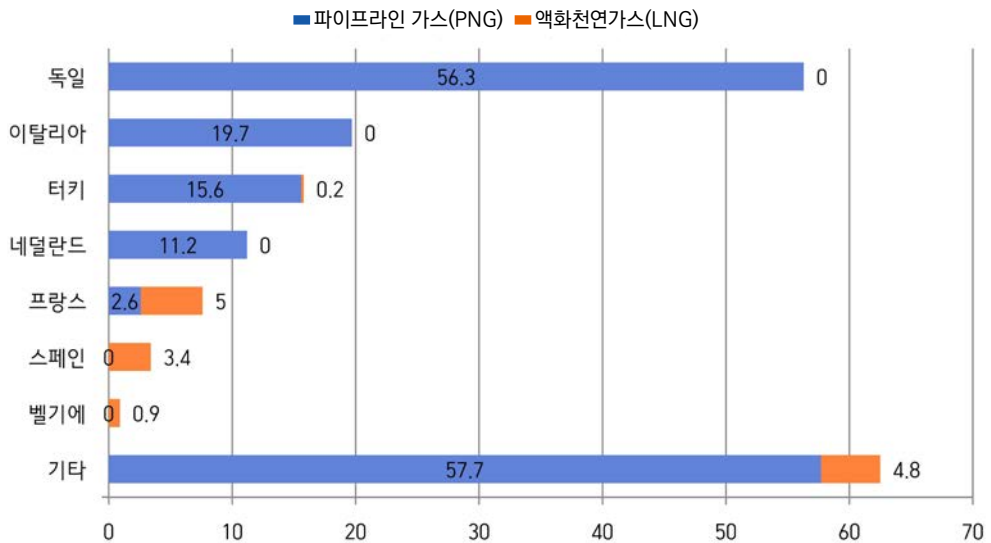
(단위: 달러/Bbl, 톤, MMBtu)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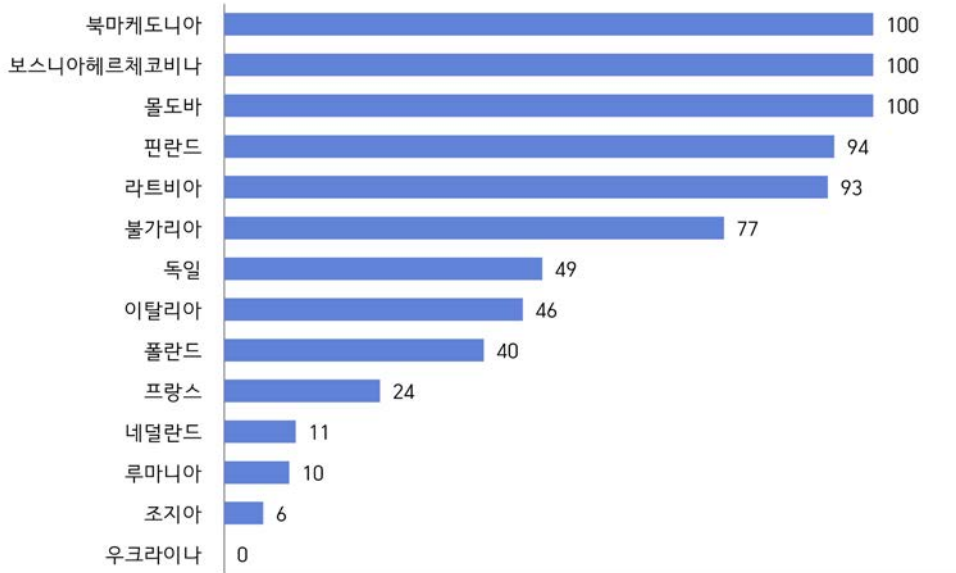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로 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무기화함에 따라 역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REPowerEU를 발표하며 에너지 수입의 탈러시아를 선언했다. 유럽은 러시아에 원유 수입량의 26.9%(1위), 석탄 수입량의 46.7%(1위), 천연가스 수입량의 41.1%(1위)를 의존하고 있다.

EU 대러시아 가스 수입량



▲자료: Statista, 2021년 기준

EU 대러시아 가스 수입량



▲자료: Statista, 2021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지적된다. 또한 러시아가 주요 원자재의 수출국인 것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원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백금족 원소(팔라듐 등)의 30%, 티타늄의 13%, 니켈의 11% 등 주요 광물의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및 태양광 전지에 사용되는 네온의 주요 공급국가이기도 하다. Dun & Bradstreet에 따르면 러시아 내 1차 공급업체는 1.5만 개 이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기업과 2차 공급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760만 개에 달한다.

(3)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기준이 되었던 경제논리가 안보논리로 전환되면서 안보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파편화되고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교역이 진행되지 않고 안보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FF55)의 이행을 가속하고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절약, 연료수입 다변화, 재생에너지 가속화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2022년 말까지 평년의 1/3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 이전에 완전 감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LNG 도입 확대, PNG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축,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가스 수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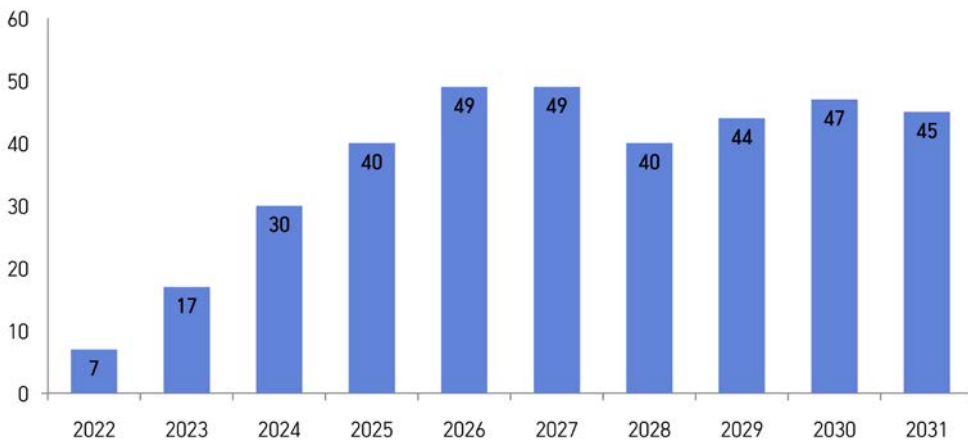
REPowerEU 주요 내용

구분	대상	FF55 2030년 목표 (기준)	REPowerEU 목표	2022목표 (bcm)	FF55 2030년 목표대비+(bcm)
가스 공급선 다변화	비러시아 천연가스		LNG 수입확대	50	50
			파이프가스 공급 다변화	10	10
	친환경 가스	바이오메탄 17bcm 생산 (17bcm 절약)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35bcm 생산	3.5	18
		친환경 수소 560만톤 생산 (9-18.5bcm)	2030년까지 수소생산량 2천만 톤 달성	-	25-50
유럽의 전력화	가정	에너지 효율화 대책 (38bcm 절약)	범EU 에너지 절약운동 (10bcm 절약)	14	이행 가속
		2030년까지 가정용 히트 펌프 3천만 개 설치, 옥상 태양광 설치 (35bcm 절약)	옥상 태양광 발전 매년 15TWh 이상 확보	2.5	이행 가속
			히트 펌프 생산 가속(향후 5년간 약 천만 대 생산)	1.5	이행 가속
	발전	풍력 480GW, 태양 42GW (170bcm 절약)	목표 이행 속도 20% 증가	20	이행 가속
산업 전환	에너지 집중산업	전력화 및 친환경 수소 사용	전력화 및 친환경 수소 사용 가속화 탄소 Cfd 적용 확대	-	-

▲자료: EU Commission

미국은 IRA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지원의 약 2/3는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되며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생산설비를 미국 내 확보하여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RA 에너지 관련투자, 집행 시기와 형태



▲자료: 미 의회예산처(CBO)

미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의 개발 및 공급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 양질의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정책기조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탄소중립)
정책방향	<p>에너지효율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 수요 증가 억제 및 감축 <p>청정에너지 보급·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해상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등) 및 원전·수소 기반 CO2-free 전원 개발·확충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정정책(감세 및 재정지원 등)의 연장 및 개선 추진 <p>신에너지기술 개발·적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생산·공급역량 확대 -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Green Hydrogen) 공급을 통해 발전부문의 연료전환 추진 -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p>청정에너지 기술 수출국가로 위상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에너지기술(소형모듈형원자로 등) 및 탈탄소기술(CCUS 등) 수출 국가로 발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전통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 복원 프로젝트 등에 500억 달러, 청정에너지 확산에 650억 달러,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정책분야에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방향

구분	내용
발전 탈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 하락,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소비자 수요 변화로 빠르게 진행됨 - 최근 성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청정 발전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
최종 사용 전기화 및 청정 연료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건축물, 산업 공정에 이르기까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전기화할 수 있으며 전기화에 대한 기술적 과제가 있는 항공, 선박, 일부 산업 공정 등은 그린 수소 혹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등의 청정 연료를 우선 사용할 것임
에너지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건축물의 효율성 개선, 지속가능한 제조 공정 등 다양하고 검증된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메탄 및 비CO2 배출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절반 정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의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줌 - 석유 및 가스 시스템에서 메탄 유출방지, 냉방 기기에서 대체 냉매 사용 등 경제적인 비CO2 온실가스 감축 옵션이 존재함 - 미국과 파트너는 글로벌 메탄 서약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을 최소 30% 저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폭적인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한 혁신을 위한 R&D를 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임
이산화탄소 제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넷제로에 가까운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 부문에 비하여 농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등 일부 분야에서는 완전한 탈탄소화가 쉽지 않을 것임 - 해당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평가되고 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활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토지 탄소 흡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학적인 전략이 필요함

▲ 자료: 백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의 2021년 에너지 공급 대외 의존도는 93%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에너지 안보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시스템에 기반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에너지 전환과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단계적 에너지 정책이 필요

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여 전통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며 중기적으로 전력 인프라 혁신,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현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국가 성장동력화, 제조업의 미래지향적 전환, 디지털 기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체계 확립으로 저탄소·고효율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원전·재생 에너지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우호국을 중심으로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핵심광물 및 수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원외교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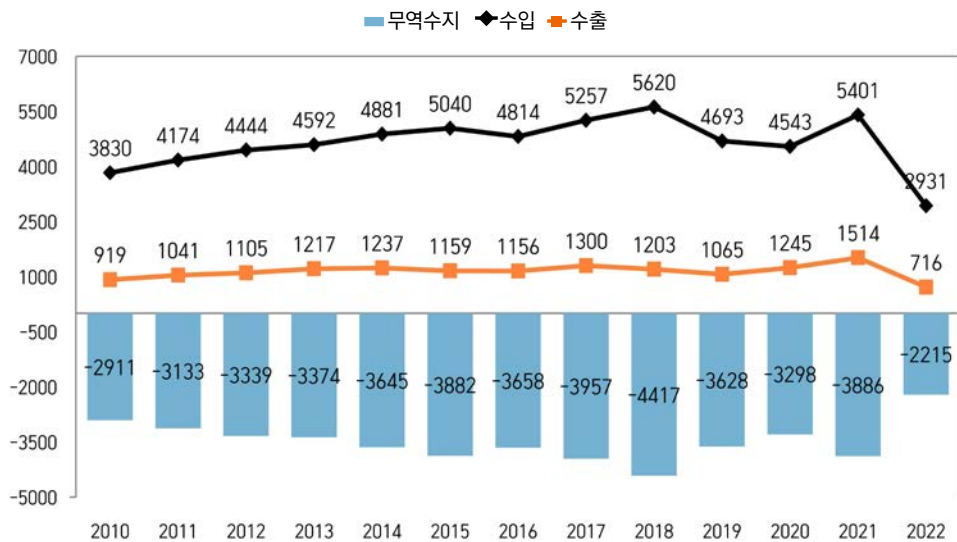
3.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1) 미·중 무역갈등의 현황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기를 지나면서 대중 수입과 무역적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로 미중 무역갈등은 봉합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의 갈등은 외교, 정치, 기술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8년 5,62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21년 5,401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도 2018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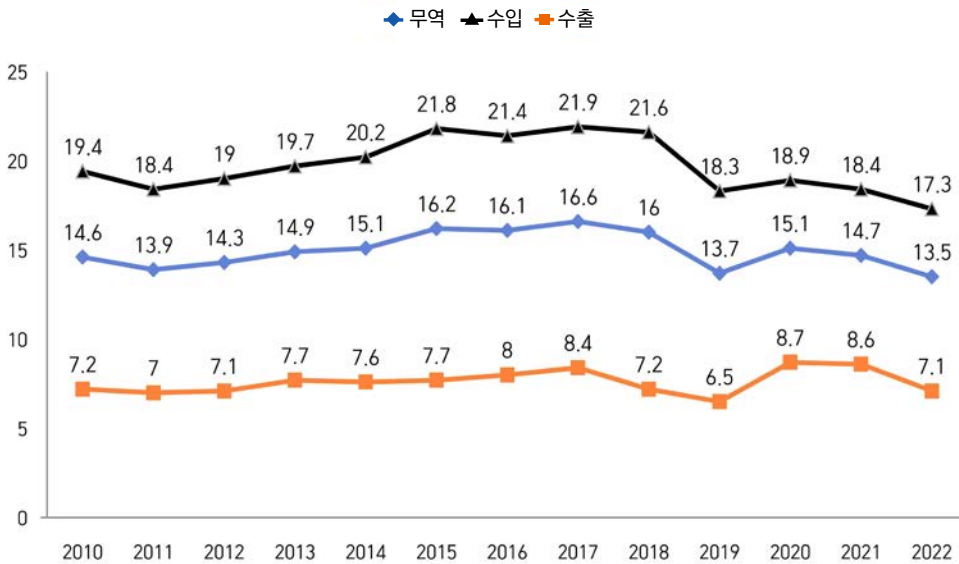


▲ 주: 2022년은 상반기 수치 / 자료: USITC DataWeb, Kita

미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7년에는 16.6%였으나 무역갈등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13.5%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대중 수입은 2017년 21.9%에서 2022년 상반기 17.3%로 4.4%p 감소하였다. 이는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301조 조치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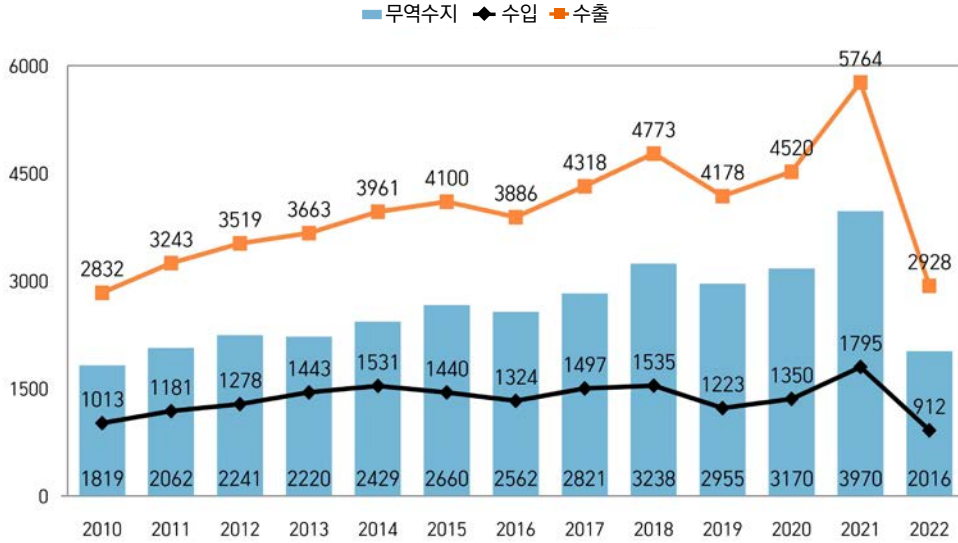


▲ 주: 2022년은 상반기 수치 / 자료: USITC DataWeb, Kita

한편 중국의 대미무역은 2019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301조 추가관세의 영향으로 2019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5,76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1년 1,7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무역흑자가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미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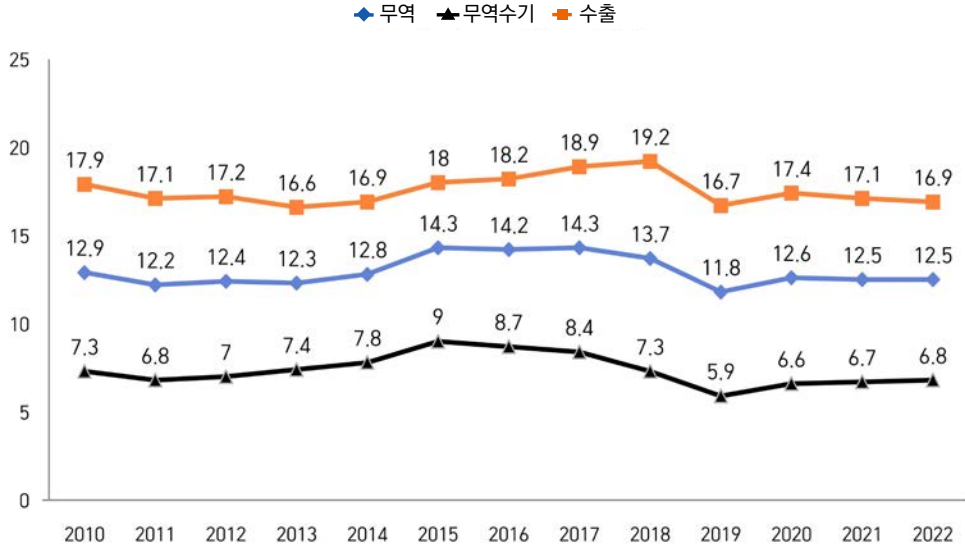


▲ 주: 2022년은 상반기 수치 / 자료: USITC DataWeb, Kita

중국의 대미 무역비중은 무역갈등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은 2017년 14.3%에서 2019년 11.8%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12.6%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2022년은 상반기 수치 / 자료: USITC DataWeb, Kita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체 대중 수입의 2/3를 대상으로 최대 3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 기대도 있었으나 대중 강경책의 일환으로 301조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률은 63% 정도로 중국이 약속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추가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품의 이행률이 78%로 높은 반면 에너지, 공산품은 각각 47%, 63%에 그쳤다. 양국의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 감소로 당초 합의 수준의 구매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301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타격한 수출통제 조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통신망과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장비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를 시행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를 무역으로 확장하여 대중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현황

제재조치	내용
301조 대중 추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추가관세 부과 - 비제재품목 대비 301조 제재품목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함 - 4년 기한이 경과되었으나 미국 국내 산업계 반발 및 정치적 이유로 해제가 쉽지 않음
수출통제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품목 및 기술의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 관리 - 화웨이 제재 등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 -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적 저사양 반도체장비 수출까지 제재
통신장비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 금지, 중소 통신사 중국산 장비 대체 지원 - 미국 통신장비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 감소 -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음
전력장비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제 - 국방 시설 외에는 전력 설비의 전반적인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속 - 301조 관세, 전력업체의 안보위협 우려,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대중 수입 비중 하락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FL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관련 제재가 무역분야로 확장됨 - 시행 초기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태양광 모듈 설비가 미국 세관에 다수 억류된 상황

▲자료: Kita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항하는 입법을 통해 수출통제 리스트와 수출 통제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해 외국의 조치들로 중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률의 역외적용 저지 방법'과 '반외국제재법'을 발표하였다. 각종 제재 방지 입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수준에서 맞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법률적인 제재보다 비관세장벽, 불매운동 등을 통한 제재방식과 구매력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의 대항입법

일자	내용
2020.9.16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 발표 - 일명 '중국의 블랙리스트'로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에 대해 맞대응 -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
2020.12.1	중국 상무부, '수출통제법' 발효 -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대해 민감품목 및 기술이 중국 외부로 인전되는 것 통제 - 수출통제 대상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증명하여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출통제와 관련해 산재된 각종 규정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법을 제정
2021.1.9	중국 상무부,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발표 - 외국법률의 중국 내 역외적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대응하기 위함 - 역외 적용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신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함
2021.6.10	최고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반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 상위법 차원에서 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행한 주체의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및 기타 조치

▲자료: Kita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항하는 입법을 통해 수출통제 리스트와 수출 통제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해 외국의 조치들로 중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률의 역외적용 저지 방법'과 '반외국제재법'을 발표하였다. 각종 제재 방지 입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수준에서 맞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이 발효되면서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이 아니라는 관세국경보호청의 확인 없이는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직접 수출품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이 사용된 원재료 및 부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가공, 제조, 조립된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면서 태양광 패널 등 신장 지역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 세관에 억류되는 등의 규제의 결과가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동맹국과의 연대로 대중 견제 전선을 확장하고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을 이끌어내면서 EU를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제재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3)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을 통해 대중국 의존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 비중이 감소하고 공급망 탈동조화 현상 등이 지속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중 갈등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경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안보가 기존의 전략물자관리에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통제 강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한 전략과 자국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며 높아지는 국제 통상규범과 기후변화 및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4. 세계정치환경 변화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대서양 동맹 강화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확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내세운 반면 러시아는 NATO의 동진정책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이탈 방지를 통해 대외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발트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교차로이자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공세적 방어 전략과 러시아의 패권국가로의 부활을 견제할 중요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EU가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을 전개하며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 수출품의 96%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을 EU와 체결하면서 EU와 무역을 확대하였고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반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안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간 패권경쟁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주요 사건 개요

일시	주요 내용
1991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 탈퇴
2014. 2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러 성향이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구성됨
2014.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크림 자치 공화국) 병합
2014. 4	친러성향 동부 2개주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간 교전 격화
2014. 5	동부 2개주 분리 독립 주민투표 실시(도네츠크 89%, 루한시크 96% 찬성)
2014. 9	우크라이나-동부지역 2개주-러시아간 민스크 휴전 협정 체결
2014~2017	우크라이나-EU 밀착 및 NATO 가입 추진 - 제휴협정 체결·발효,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발효 - 단기 무비자사증면제협정 발효
2022. 2. 10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훈련
2022. 2. 17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교전
2022. 2. 22	푸틴, 분리독립 지역 승인 및 파병 지시
2022. 2. 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 내용

가. 수출통제(FDPR)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기존에 거래통제목록(CCL)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해당하는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항목에 대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당수의 품목을 정부가 통제할 것을 표명하였다.

주요국의 對러시아 수출입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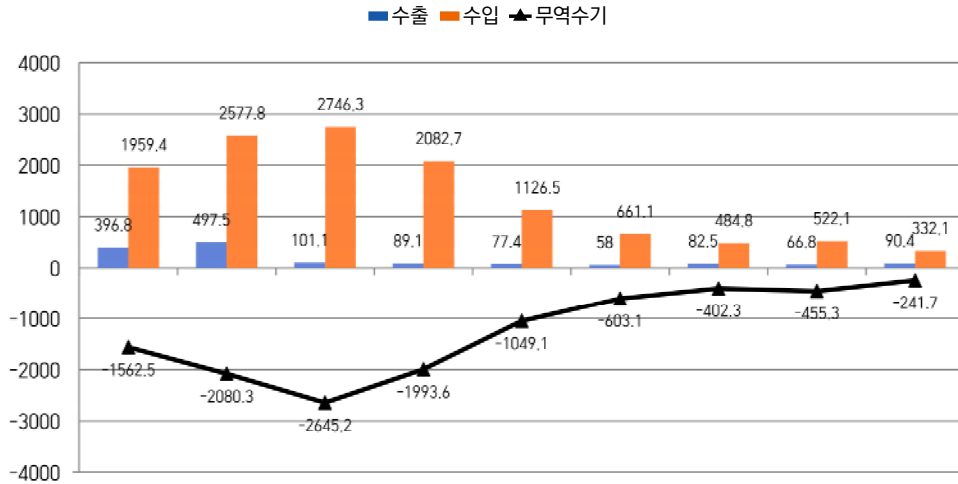
	수출 제재	수입 제재	최혜국(MFN) 대우 철회
미국	(절차 강화) 이중용도 통제 품목 (CCL 3~9) (통제) 시추장비 관련 제품 (금지) 사치품(의류, 자동차 외) (역외 수출 제한) FDPR 강화	(금지) 에너지(원유, 석유, 석탄), 해산물, 주류, 음료,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검토 중) 우라늄	검토 중
EU	(금지) 사치품(고가 자동차, 보석류 등), 에너지 관련 장비 및 기술	(금지) 철강	철회
영국	(금지) 항공, 우주산업 관련 품목, 사치품	-	철회
일본	(금지) 국제수출관리대상 품목, 석유정제장치, 이중용도 통제 품목	-	검토 중
캐나다	(금지) 석유 시추장비	(금지) 원유 및 에너지원	2022. 3. 2(180일간)
일본	(금지) 무기 또는 관련물자, 군용 물품, 석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품목	(금지) 무기 및 관련 물자	검토 중

▲자료: KIET 산업연구원

하지만 미국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가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을 보인다. 2021년 미국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6%, 1.05%에 불과하였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미국의 대러 직접투자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對러시아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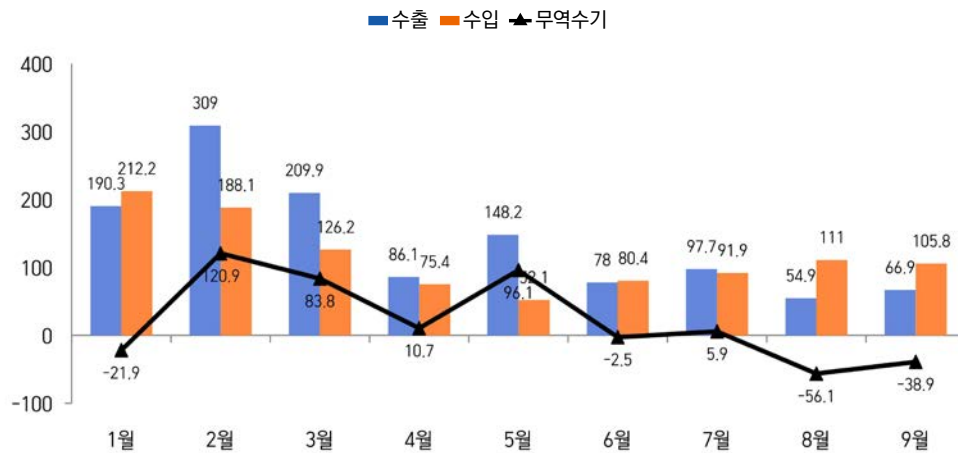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 Census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 Census

나. 금융제재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다수의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그 자회사의 미국과의 금융거래 차단 및 자산을 동결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국영 및 민간 기업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 취득을 제재하기 위해 신규 채권 및 지분투자를 제재하기로 하였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 동결조치를 발표하였다.

주요국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국가	일시	제재 내용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2.26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차단
미국	2.28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역내 보유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
스위스	2.28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인사들의 자산 동결
일본	3.1	러시아 중앙은행 등 3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거래제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주요 인사 6명의 자산 동결
EU	3.2	러시아 7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SWIFT 퇴출 제재 발효,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의 유럽지사 폐쇄 명령
	3.1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조치 동참
한국	3.7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로시아(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에너지 관련 제재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 금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제한, 러시아 내 에너지 생산설비 관련 외국기업 자금지원을 제한하였다.

라. WTO 최혜국대우 지위 취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G7 국가 및 EU와 함께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MFN) 지위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MES가 박탈되면 미국의 러시아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산에서 러시아의 시장가격이 아닌 유사국 시장가격이 적용되며 통상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미국 통상법상 러시아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게 돼 올 초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상품의 최혜국대우도 박탈된다. 캐나다는 3월 3일에 가장 먼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MFN 지위를 철회하고 35% 관세율을 즉각 적용하였으며 EU도 대러시아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거래 금지,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 러시아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 금지,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MFN 지위 취소를 발표하였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불확실성 증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원유 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원유 가격의 급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팔라듐, 니켈,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대, 핵심기술 및 첨단부품의 대러 수출차단,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퇴출 등의 영향으로 세계무

역이 위축되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물류 차질이 심화될 경우 세계무역이 위축되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IMF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으며 에너지 및 식품 부문의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021	2022	2023
세계	6.0	3.2	1.1
미국	5.7	1.6	1.0
중국	8.1	3.2	4.4
EU	5.2	3.1	0.5
러시아	4.7	-3.4	-2.3
한국	4.0	2.6	2.0
일본	1.7	1.7	1.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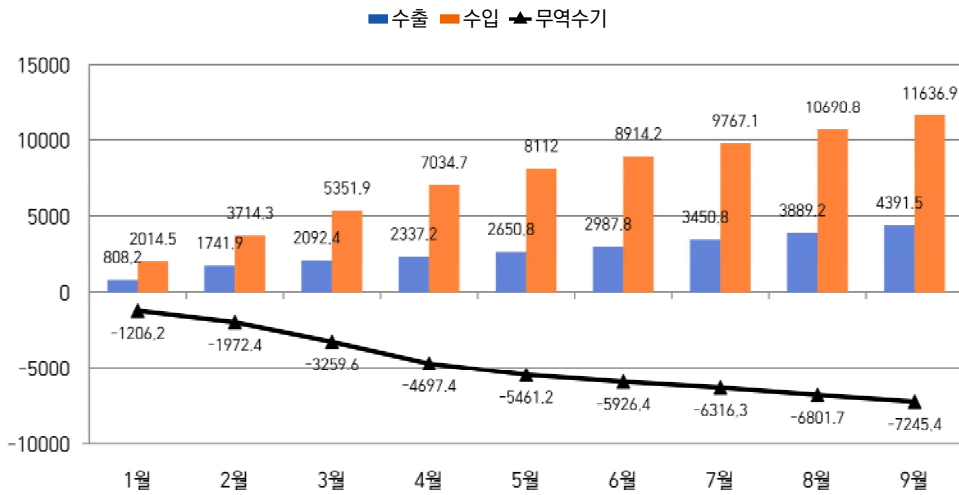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동안 세계화의 흐름 속에 진행된 자유무역체계가 경제안보가 부각되면서 탈세계화하는 방향을 진행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생산체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블록화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EU 및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 EU는 그동안 역내 천연가스 소비의 약 40%, 원유 소비의 약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의 55%, 원유의 3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IMF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로 '에너지 교역의 전환(energy trade shift)'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 불확실성 확대,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한국의 총수

출 및 총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2.8%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고강도 대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對러시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Kita



I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 사항

1. 인플레이 감축법(IRA) 시행과 한국 기업들
 2. 물류 문제
 3.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
관세 제재와 한국 기업
 4. 구인난과 비자 발급 이슈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태평양 노선 선박의 물류난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부 항만에 도착한 후에 미국 내 운송 담당 화물 철도와 트럭 운송에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 감축법(IRA)을 시행, 미 관련 산업만 혜택을 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및 첨단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 기업들이 계속 피해를 겪고 있다.

미국 내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취업 비자 발급과 재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쿼터가 2022년 연방 하원을 통과하여 기대감을 주었으나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해 10년 전 한미 FTA 체결 이래로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의 의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한국 기업들

(1) 배경

2022년 8월에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미국이 국내 에너지 생산, 특히 청정에너지 성장에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계 혜택으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에 적용되는 배터리는 내년부터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다. 이 비율은 2027년에 80%로 높아진다. 배터리 핵심 부품이나 소재도 북미 산 비중은 2024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 증가해 2029년 100%가 된다.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는 미국이나 북미에서 처리된 전기자동차 조립과 배터리 핵심 광물, 배터리 핵심 부품에만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대상으로 각종 경제 조치를 취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적성국들에 대항하기 위해 우방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프렌드 쇼어링' 등 물류와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발표해왔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가이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요한 동반자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22년 하반기에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북미

지역의 리쇼어링과 국내 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 보조금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 여파를 줄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요청사항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조립과 배터리 핵심 광물과 핵심 부품에 대해 동맹국이면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 기업에도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동등한 혜택이 없다면 한미 FTA 협정과 WTO 무역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한다.

물론 이같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힘들 경우 현재 미국에 공장을 준공 중인 현대자동차와 관련 투자를 이미 약속하고 이행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2025년까지 보조금 우대 정책을 유예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의 IRA법 시행령 준비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기업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IRA 보조금 내용에는 태양광, 풍력, ESS, 수소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세제 혜택은 투자비에 대해 6% 또는 30%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같은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에 미국산 기자재 사용 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투자를 할 경우 각각 10%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중에 미국산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한국의 기업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등 미국산 기자재 공급이 국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 건설용 기자재의 경우도 미국산 기자재로 간주하여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줄 것을 한국 기업들은 희망하고 있다.

추가로 향후에는 EV 생산 관련 강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미국의 공급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정에너지와 EV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 특히 Hyper NOES의 수급이 이루어질 있도록 2018년 미국이 정한 한국 철강 쿼터 확대 등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2. 물류 문제

(1) 배경

2021년을 정점으로 태평양 노선을 통한 아시아 제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도 ‘물류 대란’으로 피해가 심했다.

그러나 2022년에 접어들어 미국 수요 둔화 등으로 피해가 줄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평양 노선 화물 운송비도 하락했다.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러나 2022년의 문제는, 미 국내 로지스틱스 인프라가 노후한 상태인 것뿐 아니라 미 항만 하역한 후에 여전히 화물 트럭과 화물 운전기사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 운송 관련 주요 내륙 루트인 Pacific North West 철도 운임이 상승했다. 미시시피강 수위 감소에 따른 Gulf 항 바지선 운송 이슈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고 운송도 지연되었다. 자연스럽게 한국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서부 등 화물 철로 노조 파업 가능성이 2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양당 지도부 노력으로 대규모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이 2022년 12월 초에 의회를 통과했다.

노사 간 문제는 미국 수출 한국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3) 개선 요청사항

여전히 선박의 항만 정체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선사의 터미널 보유 또는 지분 참여가 이루어져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북미 해상 운송선 증대도 요청하고 있다. 물론 한국기업들 중에는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철도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이 절실한 입장이다.

3.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관세 제재와 한국 기업

(1) 배경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2022년에 새롭게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내용은 중국에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와 기술 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다.

슈퍼 컴퓨팅에서부터 중요 무기 생산에 필요한 중국의 핵심 기술 발전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반도체 기술 수출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미국 내 공급자 모두에게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나 첨단 제품도 포함되어 제재 영역은 광범위하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Made in China 반도체와 핵심 부품의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한국 기업은 반도체 관련 극자외선(EUV) 장비의 중국 반입을 허가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최신 장비를 도입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미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과거보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과 리스크가 늘어나게 된다.

(2) 애로사항 및 전망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Xi'an)에 낸드플래시(전 세계 생산의 10% 점유), 쑤저우(Suzhou)에 테스트 및 패키징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다롄(Dalian)에 낸드플래시, 우시(Wuxi)에 D램공장(전 세계 생산량의 15% 차지)을 두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된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들이 어

려움에 처해있다. 이들 기업들 중에는 중국의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한미 FTA와 USMCA 또는 WTO의 정보 기술 협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만, 중국산 주요 제품들을 미국에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1) 비용이 상승하고 2)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며 3) 한국 기업의 미 시장 기회가 위협받는다.

4. 구인난과 비자 발급 이슈

(1) 배경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팬데믹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법이 시행될 경우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당초 올해 2022년 한국 전용 비자(E-4 비자) 1만5천개 발급 허용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 상원에서 백지상태로 되돌아갔다(상원을 통과한 최종 법 명칭은 CHIP and Science Act).

특히 2022년 하반기에도 계속된 구인난 일부 해소 차원에서 업무 성격상 한국어가 능통한 한국 졸업 대학생이나 유학생 출신 한국계 직원 채용 관련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의 통과가 무산되어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주재원 비자 발급 관련해 고질적인 문제는 비자 유효기간과 미국 체류 기간이 맞지 않아 오는 불편함이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L-1 비자를 처음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5년을 받지만 미국에 도착한 주재원은 공항에서 체류 기간 3년 기한을 받게 된다. 3년 뒤에 유효한 비자 기간과 맞추기 위해 체류 기간(I-94) 연장 청원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신청 준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1~2개월이면 주재원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3~4개월씩 소요된다. 특히 준비해야 할 요건과 서류가 많다는 점이다. 준비 비용도 많이 드는 상

황이다.

한국계 하원 의원 영 김의 발의로 ‘미국경쟁법안(H.R.4521)’에는 고학력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5천개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이 포함됐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전용 취업 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1만500명)·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무제한)·멕시코(무제한)는 국가별 취업비자 쿼터가 배정돼 있다. 한국은 빠진 셈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새로 지원자를 채용할 경우 높은 임금을 요구해 기존 직원들과의 급여 차이가 발생,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미국 유학생 출신 전공자들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H-1B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기에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3) 개선 요청사항

우선 장기적으로 L-1 비자의 유효기간에 체류 기간(I-94)이 5년으로 맞추어지도록 한국 정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L-1 비자가 통과된 기업들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크레딧을 인정받아 좀 더 간소한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기를 미 진출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의 고용난에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직후부터 계속 추진되어온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건이 내년부터 다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KOCHAM 차원에서는 이들 회사들의 비자 애로 사항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시행하면서 비자 관련 자문 변호사들이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대한항공
2. HRCap Inc.
3. Meta Biomed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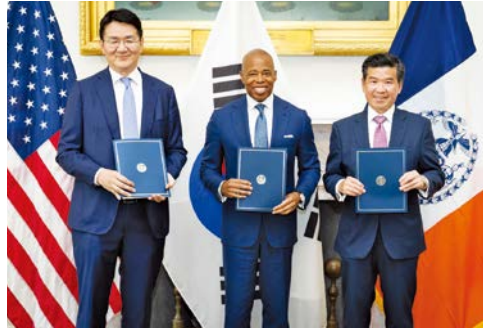
KOCHAM 회원사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개별적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지닌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각 지방 및 연방정부의 세수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각종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등 해당지역 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 대한항공



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대한항공의 CSR 활동

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대한항공의 사회공헌활동 대한항공의 사회공헌활동이 미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L.A. (로스앤젤레스) 중심도시에서 열악한 조건의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Habitat for Humanity)부터 뉴욕 내 소수민족과 여성이 소유한 사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현재 사회공헌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뉴욕에서 뉴욕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협력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 인턴십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대한항공의 뉴욕, 서울지부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AMCHAM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활동할 잠재적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뉴욕시 및 AMCHAM와의 협력으로 뉴욕의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의 한국진출과 뉴욕, 서울지부 인턴십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작은 기회들이 큰 기여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잘 알고 있

기에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40년 이상 취향해 온 뉴욕에서 기회 창출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같은 스카이팀이자 조인트벤처 파트너인 델타항공과 함께 해비타트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으로 객실승무원, 화물직원, 그리고 서울과 애틀랜타 근무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L.A.에서 함께 집을 지었으며, 올해 10월 L.A.에서 두 번째로 공동 해비타트를 시행하며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항공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 항공사의 직원들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양사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5년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서 열리는 보잉 클래식 (Boeing Classic) 골프토너먼트와 제휴를 맺고, 보잉 클래식의 양일 프로암 (Korean Air Pro-Am)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보잉 클래식은 주요 수혜처인 버지니아 메이슨 소재 베나로야 연구소 (Benaroya Research Institute, BRI) 및 시애틀 지역의 다른 자선 단체들을 위해 2005년부터 천만달러 이상을 모금해왔으며, 대한항공은 이러한 가치 있고 뜻깊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회공헌활동은 고객에서 나아가 사람과 지구를 생각한다는 이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 HRCap Inc.



HRCap은 2000년 뉴저지주에 설립하여 한국에 지사를 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고급인재채용 및 HR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내 최고의 아시안 글로벌 서치펌입니다. HRCap은 특히 동포 및 유학생들의 잡서칭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개인커리어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퍼스널컨설팅터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미주류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사랑받는 모범동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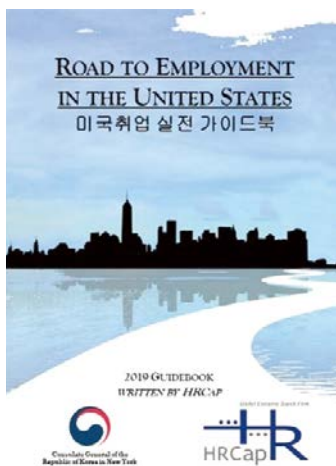
HRCap 김성수 (Andrew Kim) 대표는 30여년의 주재원 및 이민생활의 경험담을 통해 동포사회에 한국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한국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널리 알려 한국기업의 위상과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재미동포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으로써 주류사회에서도 재미동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008년에는 재미주재원클럽 (KOSEM: Korean Overseas Service Employee Member)을 설립, 전현직 주재원 및 한인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의지를 동포사회의 성장동력으로 바꾸어 보자는 미션하에 미주 동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지식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커뮤니티로 활성화하였으며,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면서 본인들의 경험한 비즈니스, 미국생활, 아이디어, 팁 등을 나누는 등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고급인재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2022년 3월 미주류 유력HR전문지인 '매니지 HR'이 뽑은 올해의 'Top 10 Executive Search Firm 2022' (톱10 임원서치펌)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6월에는 미국 내에 기여한 공로로 김성수 대표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최고의 비즈니스 저널인 NJBIZ으로 부터 '2022 NJBIZ ICON Honors Award' (뉴저지 주에서 분야별로 특별한 성과를 내고 영향을 미친 60세 이상 기업인상)을 수상하는 등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CEO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HRCap은 미래창조과학부 (MSI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한국무역협회(KITA) 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채용박람회, HR세미나, 컨퍼런스, 코칭 등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동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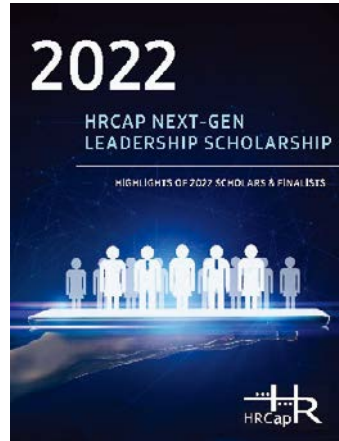


지난 2017년에는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글로벌 취업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 미국취업 실천 가이드북 (Road to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을 출판하여 많은 유학생 및 동포 학생들에게 조기 취업 코칭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의회(KSEA)와 협력하여 업계 전문지식, 인적자원 정보교류 등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전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위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적용, 경력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북미지

역 200개 대학 재학중인 동포, 유학생 등의 DB를 구축하였으며, HR세미나 개최를 통해 경력관리 조언 및 경력 코칭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와 다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

HRCap은 아시아-태평양계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로 코칭 서비스를 위해 HRCap 차세대 리더십 장학금 (HRCap Next-Gen Leadership Scholarship)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HRCap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경력 코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한 영향력있는 리더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우수대학인 코넬, NYU, Rutgers, Stony Brook University 등에서 HR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대학원생들의 면접 및 취업지도를 도와주거나 퍼스날 브랜드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HRCap은 Forbes Human Resources Council의 멤버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과 사고 리더십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아시안계 기업들이 주류사회 마켓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아시안계 기업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코칭에도 힘쓰고 있으며, nonprofit인 AAPI Montclair와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커리어 세미나와 경력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HRCap은 앞으로도 글로벌 아시안계 기업으로써 다양한 CSR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HR 시장을 리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글로벌 서치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3. Meta Biomed Inc.



메타바이오메드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지역 사회뿐만 아닌 세계 전역에 위치한 자선 단체를 후원함과 동시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 공헌 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할 것입니다.

후원

메타바이오메드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Compassion International)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메타바이오메드 미국법인 직원들은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아이들과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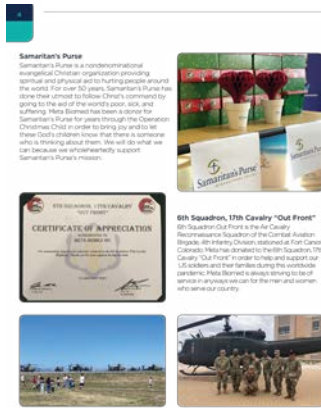
또한, 베트남 호찌민 한인교회인 참조은 광성교회와 함께 베트남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계층들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해 지역 학교 행사 및 스포츠 경기에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에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Wounded Warrior Project

메타바이오메드는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부상당한 재향 군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선 단체인 Wounded Warrior Projec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WP를 통해 재향 군인이 자신의 기술에 적합한 직업을 찾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반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6th Squadron, 17th Cavalry "Out Front"

제6중대, 제17 기병 "아웃 프런트"(6th Squadron, 17th Cavalry "Out Front")는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Fort Carson)에 주둔하고 있는 제4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의 항공 기병 정찰 중대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펜데믹 기간 제6중대, 제17 기병 "아웃 프런트"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amaritan's Purse

사마리안 퍼스(Samaritan's Purse)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초교파적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Operation Christmas Child를 통해 수년 동안 Samaritan's Purse를 기증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마리안 퍼스의 미션을 지지하며 지원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기부

메타바이오메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항시 찾고 있으며 금전적인 기

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올해 메타바이오메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의 비영리 단체인 OSJ Association Inc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치과에서 환자를 치료할 물품이 없는 곳을 찾아 필요한 재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가 더불어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1. 각 지역별 협회 소개

미전역에는 뉴욕, 엘에이, 휴스턴, 디트로이트, 아틀란타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뉴욕),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 엘에이), 미시간한국지상사협회(KCAM, 디트로이트), 휴스턴한국지상사협회(KCAH, 휴스턴), 조지아한국지상사협회(KCCIG, 애틀랜타) 등 5개 지역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협의체간 MOU 체결을 통해 대외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미주지역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1. 각 지역별 협회 소개

(1) 미국 내 한국 지상사협회 소개

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영문명 :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 설립연도 : 1992년 6월
- 회원사 : 총 115개사
- 소재지 : 뉴욕, 뉴욕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은 90년대 초 세계 수출시장 여건 악화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미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 미국 내 한국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관련 건의 및 교섭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2년 6월 19일 설립되었다.

한편, KOCHAM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 정부와 의회에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활동 등 미국 내 활동뿐 아니라, 한국 사회 및 정부에도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적인 지원과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차원의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

- 영문명 :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 설립연도 : 1996년 3월
- 회원사 : 총 150개사
- 소재지 : 엘에이, 캘리포니아주

남가주한국기업협회는 지난 1996년 3월 25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사업 활동상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과 아울러 미주 교포사회를 포함한 미국사회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미간 통상증진 및 유대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 영문명 :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
- 설립연도 : 1995년 4월
- 회원사 : 총 37개사
- 소재지 : 디트로이트, 미시간주

1995년 4월 1일에 설립된 미시간지상사협회는 한국 지상사로 파견된 주재원 및 미시간 소재의 지상사 협회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유

대와 친목을 도모, 이를 통한 회원(사)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라. 휴스턴 한국지상사협회(KCAH)

- 영문명 :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
- 회원사 : 총 37개사
- 소재지 :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및 텍사스 지역의 한국 지상사 및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서 회원사들은 주로 오일 및 가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회원사 간의 친목 도모 및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사들의 각종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5) 조지아 한국지상사협회(KCCIG)

- 영문명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
- 회원사 : 총 38개사
- 소재지 : 애틀랜타, 조지아주

한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회사의 주재원으로 애틀랜타에 주재하는 직원을 회원으로 한 단체로, 미국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정보 교환과 주재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공식 모임 외에 타지역 주재원,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과 기타 경제 세미나 등의 참석 등을 통해 각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II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활동 사항**

한미 통상 및 회원사 애로사항 개선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무역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워싱턴 방문단을 구성해 미 정부당국과 의회 등을 방문하여 민간 외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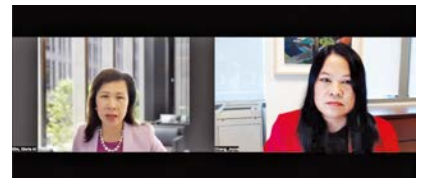
회원사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활동 전개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연례체육대회, 정기총회와 연례만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정보 제공 및 서비스 확충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비롯해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에게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경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인사회 협력 활동

지역 동포 사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동포사회 지원 차원에서 동포 대학생들을 회원사인 지상사들과 금융기관에 배치하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은 매년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동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국학교 운영

KOCHAM 부설 우리한국학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회원사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할 경우 본국의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규 과정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검증된 교사진을 바탕으로 한인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www.koch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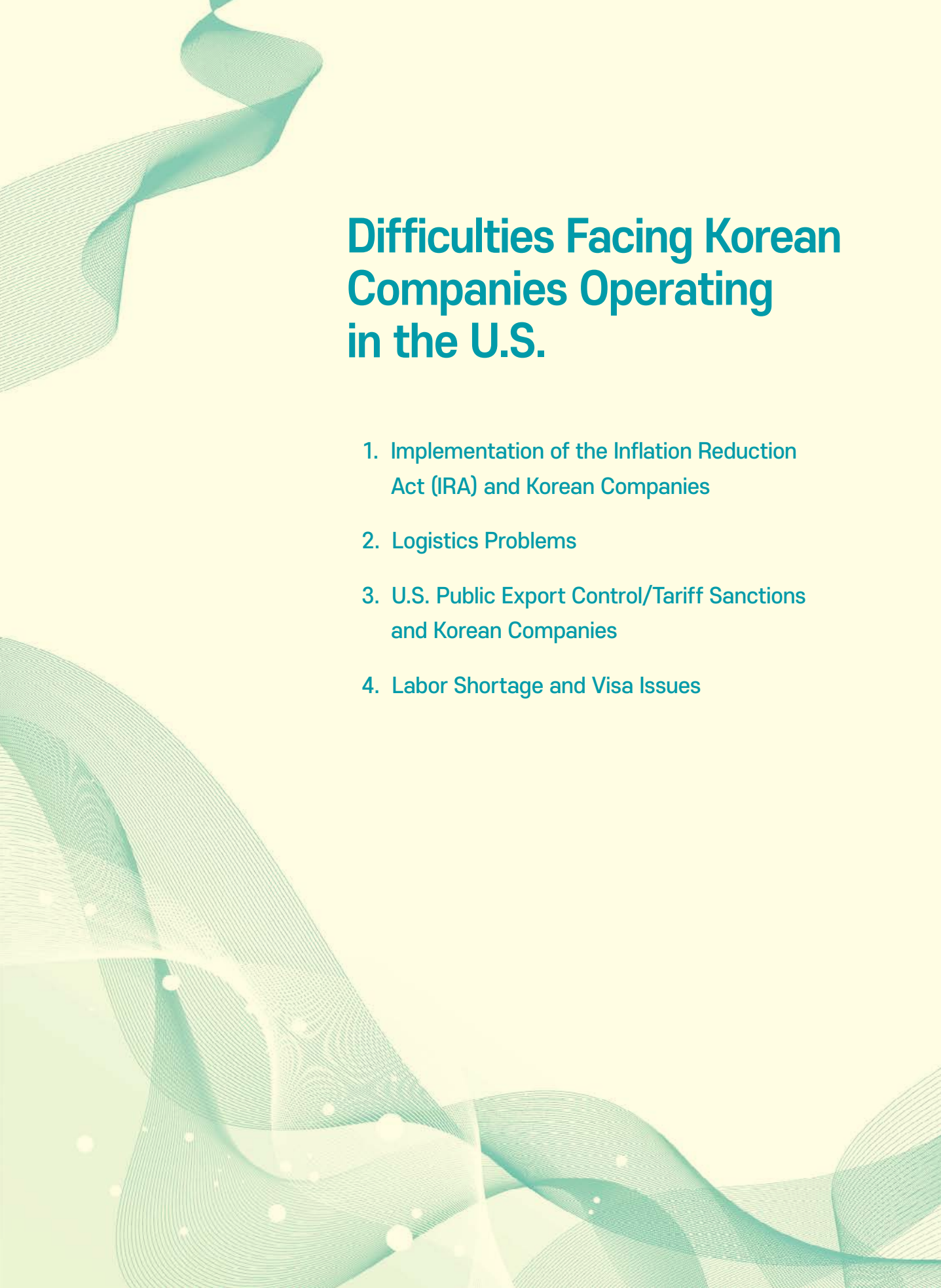


2022-2023

WHITE PAPER ON TRAD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K 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U.S.

1. Implementat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Korean Companies
2. Logistics Problems
3. U.S. Public Export Control/Tariff Sanctions and Korean Companies
4. Labor Shortage and Visa Issues

In the second half of 2022, after the pandemic, the logistics problems for trans-Pacific shipping routes have eased somewhat. However, rail freight and truck transport within the U.S. after arrival at West Coast ports have not been smooth.

In particular, the U.S. has implement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which benefits only U.S.-based industries, posing an immediate challenge for Korean companies. An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restricting exports and banning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China, Korean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China continue to be adversely affected.

Labor shortage in the U.S. has not eased. Moreover, with getting employment visas issued or extended` being difficult, per-country employment visa quota for Koreans was pass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22 and raised expectations, but it did not pass in the Senate, and we are in a situation where efforts need to be renew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KORUS FTA was entered into 10 years ago, to get a professional worker visa quota for Koreans passed in Congress.

1. Implementat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Korean Companies

(1) Background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of 2022, which passed both houses of Congress in August of 2022, largely comprises 3 parts, including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and lowering healthcare costs. The most important area among them for Korean companies is that the U.S. will be providing huge support toward domestic energy production, particularly clean energy growth.

The central provision is that starting in 2023, only electric vehicles with final assembly in North America will be eligible for the maximum EV tax credit of \$7,500 per vehicle. This applies where 40% of key minerals in batteries used in the electric vehicles are procured from countries that the U.S. has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is threshold will rise to 80% by 2027. For key battery components or materials as well, the North American origin threshold will rise by 10% each year, from 60% in 2024 to 100% in 2029.

(2) Difficulties

The problem is that these benefits apply only to EV assembly in the U.S. or North America, and to key battery minerals and key battery components sourced from the U.S. or North America.

The U.S. has taken various economic measures against China, which has grown to become an economic superpower, and Russia, which started a war with Ukraine. In order to counter

these hostile countri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at it is building a “friend-shoring” system of cooperative logistics and supply chain network. Korea is cooperating as an important ally as well as a partner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n effort to check China’s economic influence.

How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with the passage of the IRA in the second half of 2022, are pushing forward with policies emphasizing reshoring and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policy of providing subsidies related to electric vehicles is expected to impact Korean companies.

(3) Improvements to be Requested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are requesting that the U.S. extend equal benefits with respect to EV assembly and key minerals and components to companies in Korea, which is an ally as well as a country with an FTA with the U.S. Industry observer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likely violations of the KORUS FTA and WTO trade agreements if equal benefits are not given.

Of course, if granting such equal benefits is not possible, Hyundai Motor Company, which is currently building a factory in the U.S., and companies that have already pledged and are pushing forward with related investments, are hoping that the policy providing preferential subsidies will be postponed until 2025.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presented their positions during the comment period as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prepared the IRA enforcement regulations.

Also, included in the IRA subsidies are tax benefits for clean energy generation business including solar, wind, ESS, and hydrogen. The benefit is a 6% to 30% tax credit on the amount invested. In addition, an additional 10% incentive is given, respectively, when equipment and materials produced in the U.S. are used in such clean energy generation or investment is made in low-income communities. But the incentive is provided only when

equipment and materials produced in the U.S. are used, so it appears that Korean companies will not be afforded a fair opportunity. Moreover, the supply of equipment and materials produced in the U.S. such as solar panels and batteries is currently falling well short of domestic demand.

Korean companies are therefore hoping that even clean energy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from Korea, which has an FTA with the U.S., will be considered as equipment and materials produced in the U.S. and be given the 10% additional incentive.

In addition, there will be a extremely insufficient supplies of steels, in particular, Hyper NOE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demand for electrical steel for EV motor production is expected to increase substantially in the coming years. Hyper NOES is an essential input in the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 motors, as well as other clean energy technology. Korean companies are expecting the US government to consider the expansion of Korean steel quota set by the U.S. in 2018 in order to address electrical steel shortage issues in the U.S.

2. Logistics Problems

(1) Background

Severe losses from the “logistics crisis” reached their peak in 2021 for U.S. companies that import products and raw materials from Asia via the trans-Pacific route, and for Korean companies that have operations in the U.S.

However, losses have decreased in 2022 due to slowing demand in the U.S. In addition, trans-Pacific freight shipping rates have also declined.

(2) Difficulties

The problem in 2022, however, is that not only is the U.S. logistics infrastructure outdated, there is continued shortage of freight trucks and freight truck drivers after cargo is unloaded at U.S. ports.

Specifically, the rail freight rates for the Pacific Northwest Rail Corridor, a major inland route for rail transport, have increased. Distribution costs increased, and transport was delayed, due to river barge transport disruption caused by low water levels on the Mississippi. This has naturally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e threat of a railway workers strike in Western U.S. and elsewhere has continued for 2 years. The likelihood of a strike has increased due to differences over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effort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leadership of both parties, a bill

blocking a U.S. railroad strike was passed in Congress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2022.

Labor-management conflic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companies exporting to the U.S. as well.

(3) Improvements to be Requested

Because the potential for container ship backlog at ports remains, Korean companies are hoping that container terminal ownership or equity participation by Korean shipping companies will come to fruition and alleviate the difficulties facing them. Companies are also calling for increases in ocean cargo ships from Korea to North America. Of course, some Korean companies are seeking to diversify their supply chain network.

Also, from the standpoint of Korean companies, it is imperative that the railroad labor-management conflict be resolved.

3. U.S. Public Export Control / Tariff Sanctions and Korean Companies

(1) Background

The U.S. imposition of tariffs on China has continu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Moreover, at the center of the restrictions on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newly announced by the U.S. in 2022 is a ban on sales of state-of-the-art U.S.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to China.

The U.S. is blocking the exports of semiconductor technology with the intention of striking a blow against China's core technology development, starting with supercomputing which is needed to produce key weaponry.

This has sent shockwaves across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and U.S. suppliers. With advance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products included, the scope of restrictions is vas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are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in China. It is that there are Korean companies among manufacturers of the so-called "Made in China" semiconductors and key components. As an example, Korean companies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in China were unable to obtain permits to bring semiconductor-related extreme ultra-violet (EUV) equipment into China. As these companies must undergo stricter review processes to receive U.S. approval when increasing production in China or introducing or purchasing the latest equipment there, unexpected costs and risks will increase.

(2) Difficulties and Outlook

Currently Samsung Electronics owns a NAND flash memory plant in Xi'an (10% of global production) and a testing and packaging plant in Suzhou, respectively. In the case of SK Hynix, the company has a NANA flash plant in Dalian and a DRAM plant in Wuxi (15% of global production), respectively, and would suffer directly and indirectly.

Korean companies are also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continued imposition of tariffs on products from China. Many of these companies must import products from China. Of course, although Korean products do benefit from the KORUS FTA, USMCA, or WTO's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ariffs are imposed when key products manufactured in China are imported into the U.S. Due to the imposition of such tariffs by the U.S., 1) costs rise, 2) relative competitiveness declines, and 3) market opportunities in the U.S. are threatened for Korean companies.

4. Labor Shortage and Visa Issues

(1) Background

Due to the pandemic, recruiting has been difficult for Korean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the U.S. Accordingly, companies had hoped that they will get some breathing room if the law on employment visas for South Koreans is implemented.

Initially a bill allowing the issuance of 15,000 visas for Koreans (E-4 visas) in 2022 pass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bill changed in the Senate. (The name of the law that ultimately passed in the Senate was the CHIP and Science Act.)

In particular, from the standpoint of alleviating some of the labor shortage that continued through the second half of 2022, Korean companies,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were in need of visas for professional workers to be able to hire college graduates from Korea or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proficient in Korean. However, the bill failed to pass and the desired result is yet to be achieved.

(2) Difficulties

The chronic issue related to the issuance of resident employee visas is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visa validity period does not coincide with the period of stay in the U.S.

When an L-1 visa is obtain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U.S. Embassy in Korea, the

validity period is generally 5 years, but a resident employee who arrives in the U.S. receives a period of stay of 3 years at the airport. After 3 years, the employee would need to prepare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stay (I-94) to match the visa expiration date. However, preparing the application is complex and costly, and in some cases the application is rejected.

It used to take 1-2 months for resident employee visas, but now it takes 3-4 months. The number of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to be prepared are especially numerous. The fees are considerably high as well.

For the “America COMPETES Act (H.R. 4521)”, a “Partner with Korea Act” amendment providing for the issuance of 15,000 employment visas (E-4) per year for highly educated Korean nationals was put forth by Korean-American congresswoman Young Kim and included in the bill but ultimately failed.

Dedicated quotas for employment visas by country have been assigned for Australia (15,000), Singapore (5,400), and Chile (1,400), which have an FTA with the U.S., and Canada (unlimited) and Mexico (unlimited), which are NAFTA countries. Korea has been excluded.

Also, if Korean companies hire new employees amidst the labor shortage in the U.S., the new hires will demand higher wages, leading to a wage disparity with existing employees, which in turn could lead to workplace confli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mpanies need to hire specialists who studied in the U.S. as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also proficient Korean speakers. And because obtaining an H-1B visa is very difficult, there were high expect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visa quota for Koreans.

(3) Improvements to be Requested

First, over the long term,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ring about a policy change so that the visa validity period and the period of stay (I-94) are both 5 years.

Also, Korean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the U.S. continue to hope that companies that have been issued L-1 visas will be given company credits that can be used to simplify future visa application processing.

The situation calls for renewed efforts to establish a dedicated visa quota for Koreans – which had been in the works continuously since immediatel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US FTA in 2012 – so that Korean companies can get some breathing room amidst the labor shortage in the pandemic era.

KOCHAM, for its part, has continued to conduct seminars on visa-related difficulties facing the companies, and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e work of advisory counsel providing visa-related support to the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ompanies in the U.S.

1. Korean Air
2. HRCap Inc.
3. Meta Biomed Inc.

1. Korean Air



KOREAN AIR'S CSR PURSUITS SPAN AMERICA

Korean Air's CSR activities in America are growing and significant. From building Habitat for Humanity homes in Los Angeles's central city to providing opportunities for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es in New York, Korean Air is invested in doing good in the U.S.

Recently, in New York, the airline announced plans to work with the City of New York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o create projects that can benefit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as well as create local internships.

Working closely with New York Mayor Eric Adams' office, Korean Air's plans are to create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New York's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es to tap into the Korean market. The agreement also creates internship programs at Korean Air's offices in Seoul and New York, and potentially creates opportunities in New York for small businesses in Korea with AMCHAM's assistance.

"Korean Air is proud to be working with New York City and AMCHAM Korea to support New York based 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es to enter the Korean market and internships in New York and Seoul. Korean Air understands that small opportunities can grow into important contribution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this historic project. We are glad to help enhance opportunities in a city that we have been serving for more than 40 years," said Walter Cho, Chairman & CEO of Korean Air.

In addition, Korean Air carried out its Habitat for Humanity work with Delta, its SkyTeam and airline joint venture partner. The two carriers joined forces with Habitat for Humanity for the second time this past October to build a home in Los Angeles.

The first joint building project was in October 2019, and employees from each airline including cabin crew, cargo staff and even employees based in Seoul and Atlanta flew in and participated. The program was put on hold for three years because of COVID but was reinstated in October 2022, again with Korean Air and Delta volunteers from Los Angeles, Atlanta, and Seoul. About 80-85% of these Habitat homes are built with the help of volunteers!

This CSR project not only empowers Korean Air to do good in its local communities, but also strengthens the bond of the two airlines' joint venture by giving employees from both sides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Meanwhile, for the past 15 years, Korean Air has partnered with the Boeing Champions golf tournament held outside Seattle, Washington, and been a title sponsor of the Boeing Classic's two-day Pro Am. Since 2005, the Boeing Champions golf tournament has raised over \$10 million for its main beneficiary, Benaroya Research Institute (BRI) at Virginia Mason and other charities in the Greater Seattle area. Korean Air is proud to be associated with this very worthy and relevant endeavor.

All of this contributes to Korean Air's goals to "care about our people, passengers and planet." The airline is committed to doing right by doing good.

2. HRCap Inc.



HRCap is a premier Asian global search firm in the U.S. The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in New Jersey in 2000 and has a branch office in Korea, provides top-level talent recruiting services and HR solutions for global companies. In particular, HRCap has not on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through job creation through job searches for Korean America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d career coaching for individuals, we have also actively conducted meaningful activities as personnel consultants who fulfill our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local community, establishing ourselves as a model Korean American company that is loved and is growing together with mainstream America.

Invigorating the Korean Community

HRCap's CEO Sungsoo (Andrew) Kim has contributed to elevating the status of Korean companies and the image of Korean brands by publicizing the passion and willpower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his efforts to invigorate the Korean community based on his 30+ years of experience as a resident employee and immigrant. In particular, he instilled confidence in Korean Americans that they also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mainstream American society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shared growth through networking.

In 2008, Andrew Kim founded the Korean Overseas Service Employee Member (KOSEM) with the mission of converting the specialized individual capacities of current and former resident employees and Korean-American experts into a growth engine for Korean American society. Under this mission, the organization has become an active community contributing to the progress of Korean-American industries and leading the global intellectual society, and currently 200 members are faithfully carrying out the role of a community hub, sharing ideas, tips, a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in business and life in the U.S.

Through our business activities such as job creation for high-quality talent, along with our aforementioned efforts to invigorate community networking, our company was named a "Top 10 Executive Search Firm 2022" selected by "Manage HR", an influential mainstream HR

trade magazine in the U.S., in March 2022, and in June 2022, our CEO Sungsoo Kim has been recognized by the mainstream society for his leadership as a CEO, receiving the “2022 NJBIZ ICON Honors Award” (award given to entrepreneurs over 60 in various industries who have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and made an impact in the state of New Jersey) from the premier New Jersey business journal NJBIZ for the contributions he has made in the U.S., a first for a Korean-American.

HRCap has collaborated wi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OK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and Korean Chamber of Commerce (KOCHAM), and through such efforts has carried out projects that are needed in local communities, including job fairs, HR seminars, conferences, and coaching,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jobs in the Korean community.

In 2017, we held a global employment seminar with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w York; we published the guidebook Road to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provides practical early employment coaching and job search advice to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American students; and we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to promot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applica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mmunity service for Korean Americans across the United States by providing support for industry expertise and exchange of human resource information. In addition, we built a database of Korean America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enrolled at over 200 colleges in North America to support their job search more effectively, and provided career management counseling and career coaching service by holding an HR seminar, which garnered a hugely positive response.

Bridging Multi-Cultural and Multi-Generational Gaps

HRCap held the HRCap Next-Gen Leadership Scholarship program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coaching service to Asia-Pacific students. Through the program, HRCap lightens the economic burden on students and, by providing career coaching service, mentors

student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grow into influential leaders for their communities. We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community by assisting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with interviews and job search guidance or by providing support for their personal branding activities, through special HR programs at colleges such as Cornell, NYU, Rutgers, and Stoney Brook University.

HRCap is also an active member of the Forbes Human Resources Council,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by providing expert knowledge and thought leadership. We provide organizational consulting to Asian companies so that they can grow in the mainstream market, and have made efforts to provide cultural coaching so that global talent can become influential leaders of Asian-American companies. Also, through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AAPI Montclair, a nonprofit organization, we have also served the local community by supporting career seminars and career coaching programs as well as sponsoring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In Closing

As a global Asian-American company, HRCap will continue to grow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 variety of CSR activities, and grow to become a proud Korean global search firm that is a leader in the global HR market.

3. Meta Biomed Inc.



At Meta Biomed, we not only strive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we also do our utmost to become a company that contributes to social progress.

Meta Biomed provides support to charitable institutions not only in the local community but all over the world, and makes efforts to provide support where help is needed, without turning away. We will be there to return the love shown by our customers through activities contributing to society, wherever support is needed.

Support

Meta Biomed supports children in need through Compassion International. In addition to financial support, the employees of Meta Biomed's U.S. subsidiary maintain regular contact with the children. Also, we provide support to the underprivileged in Vietnam in cooperation with Chamjoeun Gwangsung Church, a Korean church in Ho Chi Minh. In particular, we help with the cost of operation for children who need heart surgery so that they can lead healthy lives.

In addition, we sponsor local school events and sports games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We also support college-bound students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with scholarships so that they can focus on academics without economic hardship.

Wounded Warrior Project

Meta Biomed has been providing support for the Wounded Warrior Project, a charitable organization that provides a variety of programs for veterans wounded since September 11, 2001. By supporting programs through WWP, including providing opportunities for veterans to find jobs suitable for their skills and spend time with their families, we support, with a thankful heart, programs that enable them to smoothly adapt to social life.

6th Squadron, 17th Cavalry “Out Front”

The 6th Squadron, 17th Cavalry “Out Front” is the air cavalry reconnaissance squadron of the 4th Infantry Division Combat Aviation Brigade based in Fort Carson, Colorado. During the pandemic period, Meta Biomed provided support to the 6th Squadron, 17th Cavalry “Out Front” airmen and their families. We at Meta Biomed are doing our utmost to support servicemen who are serving the country.

Samaritan’s Purse

Samaritan’s Purse is an ecumenical evangelical Christi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spiritual and material support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need a helping hand in the name of Christ. Meta Biomed has donated to Samaritan’s Purse for several years through Operation Christmas Child.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mission of Samaritan’s Purse in the future.

Contributions

Meta Biomed is always looking for places that need a helping hand, and rather than focusing just on monetary contributions, we look for ways to help in many different areas. This year, Meta Biomed, through OSJ Association Inc., a nonprofit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the Order of the Knights of St. John of Jerusalem, identified dental hospitals in Ukraine that did not have supplies to treat patients and provided materials needed, praying for peace in Ukraine.

Meta Biomed will continue to share our experienc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o that we can all help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gether.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1. About Regional Korean Chamb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ix(6) regional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major cities such as New York, Los Angeles, Seattle, Houston, Detroit and Atlanta. In each region, Korean Chamber has different names as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KOCHAM) in New York,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n Los Angeles,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in Seattle,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KCA H) in Housto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in Detroi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n Atlanta.

Currently, with strong correlation and mutual benefits among the regional Korean Chambers, we are discussing to form the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A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About Regional Korean Chambers

(1)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KOCHAM)

- Establishment : June, 1992
- Number of Members : 115 companies
- Location : New York, New York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KOCHA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June of 1992, has grown to include more than 100 US-based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mport-export, banking, transportation, securities, insurance and construction whose headquarters are in Korea.

Its mission is to fulfill a multi-faceted role and support our members to raise their management skills. In addition, we are also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diplomacy initiativ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and goodwill between the people and the business communit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KOCHAM is also dedicated to build clos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enterprises.

(2)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KITA)

- Establishment : March, 1996
- Number of Members : 150 companies
- Location : Los Angeles, California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on March 25th, 1996. KITA have promoted to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among member companies by provid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ts mission to better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members of KITA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has been a success. KITA is now an integral part of California's economy and will strive to contribute even more to said economy.

(3)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 Establishment : April, 1995
- Number of Members : 37 companies
- Location : Detroit, Michiga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established on April 1st, 1995 is a private organiza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Michigan which have mutual

interests and benefit to promote network opportunities and exte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companies.

(4)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of Houston(KCAH)

- Number of Members : 37 companies
- Location : Houston, Texas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of Houston(KCAH) is a meeting group of about 37 Korean busines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Houston area. Its mission is to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extends network opportunities among the member companies.

(5)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 Number of Members : 38 companies
- Location : Atlanta, Georgia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s an organization whose members are mainly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with its HQ in Korea. KCCIG holds General meetings four(4) times a year and Board of Director meetings twice a year in order to provide an opportunities to enhance networks among member companies. In addition, KCCIG also provide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hrough holding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flowing, wavy lines in a teal color,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se lines are composed of fine, parallel lines, giving them a mesh-like or fabric-like appearance. Scattered throughout the lower half of the page are small, white, glowing dots of varying sizes, which add a subtle, futuristic or digital feel to the design.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a soft, light green, providing a clean and professional backdrop for the text.

Activities of KOCHAM

Requesting U.S. Government and its agencies to improve the business difficulties that our members encountered while conducting business in the USA.

KOCHAM has been helping members cope with and resolve the inevitable problems of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y meeting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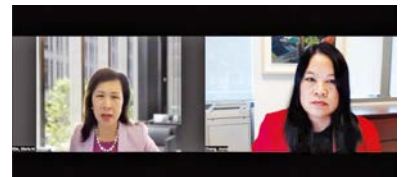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KOCHAM host several annual events, such as Annual Golf Tournament and Dinner Party, to encourage and facilitate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Contributing to active bilateral exchange i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and to build closer ties between Korean and U.S. firms

KOCHAM provides valuable direct services to our constituents by holding monthly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Provides resources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several means

KOCHAM has provided an annual Summer Internship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f second generation Korean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foster close cooperation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addition, KOCHAM has been supported The Korean Parade, an annual tradition, offering New Yorkers the opportunity to observe and share the culture of Korea, each year.



Operating the weekend Korean School program that designed to prepare Korean-American children planning to visit or return to Korea

This weekend program is design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our members' children as well as their Korean-American peers. In particular, through this program, children are prepared to successfully adapt 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in the event they visit or return to Korea.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인 미한국상공회의소

책임편집 KOCHAM 통상분과위원회 / 출판분과위원회

인쇄 인쇄디자인꿈 (ggom1403@gmail.com)

※ 이 책자의 판권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KOCHAM이 소유합니다.

※ 본 책자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